

# 北韓의 對外政策에 관한 小考

崔 鐘 起

## 一. 序 論

### 1. 研究意義 및 範圍

本稿는 北韓의 對外政策에 관한 目標와 戰術的 轉換에 대한 分析을 試圖하여 보려는 것이다. 特히 激動하는 國際情勢속에서 南·北으로 分斷된 韓半島에서 北韓의 對外政策을 研究, 分析하는 것은 重要한 意義를 지니는 것으로 이에 대한 正確한 分析을 한다는 것은 뼈 어려운 與件下에 있다.

그것은 共產圈에 관한 資料가 稀少할 뿐만 아니라, 恒常 共產圈에서 發表하는 聲明 또는 刊行物은 그들의 對外政策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宣傳에 置重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特히 北韓社會는 社會主義 國家中에서도 金日成의 소위 「唯一體制」下에서 모든 刊行物, 論說 및 放送등은 「金日成 一人 獨裁를 驅駛·讚揚」하는데 많은 比重을 두고 있는 것이 現實인 것이다.

다만 本稿에서는 客觀的인 見地에서 北韓의 對外政策의 흐름을 整理하여보는 것으로, 먼저 研究의 範圍로서 序論, 外交目標와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 그리고 北韓의 對共產圈外交의 展開過程을 檢討하고, 對中立國 外交 및 對西方 外交, 特히 對日·對美關係를 論하고, 對南韓關係를 分析하고, 結論을 맺었다.

研究方法은 北韓에서 發表한 聲明, 「로동신문」, 刊行物 및 外國學術雜誌 및 新聞등에 引用된 内容과 刊行物 등을 參照, 叙述하는데 그치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初步的인 資料의 整理이며, 앞으로 同問題를 보다 깊이 研究하는데 基礎的인 資料 및 方向을 찾아보는데 不過한 것이다. 論文 執筆에 있어서는 特히 資料의 不足과 時間의 不足으로 처음에 意圖한 몇분의 일도 資料의 蒐集 및 整理가 되지 않았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 2. 序 言

北韓政權이 樹立된 以後, 지금까지의 北韓의 外交政策의 展開過程을 一覽하면 大體로 5段

階로 区分해 볼 수 있다. 즉 第1段階는 1948年 北韓政權樹立時부터 1956年까지의 對蘇一邊倒 接近時期이고, 第2段階는 1956年부터 1962年까지의 多元的 對外接觸의 轉換期, 第3段階는 1962年부터 1964年까지의 對中共接近期, 第4段階는 1965年부터 1969年까지의 對蘇關係改善 및 對中共關係疎遠期 그리고 第5段階는 1969年부터 現在까지의 對中·蘇同時的 接近 및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期이다.

이와같이 時期의 段階로 区分하여 볼때 北韓의 對外政策은 한마디로 蘇聯과 中共에 接近과 疏遠을 反復, 搖動하는 政策이었으며, 따라서 北韓의 對外政策의 基軸은 對蘇·對中共外交에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對蘇·對中共外交를 主軸으로 하여 對共產圈外交에 注力하여 온 北韓은 1960年代에 접어들어 中·蘇間 對立의 激化, 亞·阿諸國의 國際舞臺에의 大舉進出과 國際地位向上, 게다가 1961年第15次UN總會에서의 南·北韓 同時招請問題에 대한 最初의 舉論등을 契機로 하여 外交活動의 積極的인 展開가 必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北韓은 이른바 反帝·反植民 民族解放의 旗幟를 내세우면서 亞·阿·中南美諸國에 대한 浸透外交를 積極化, 多元的 對外接觸에 腹心하게 되었다. 이렇게 亞·阿및 中·南美의 中立諸國과의 紐帶을增進코자 한 北韓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이미 1956年4月 北韓勞動黨第3次黨大會에서『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의 平和的 共存에 對한「례난」의 原則을 堅持하며 우·나와 좋은 關係를 維持하려는 모든 나라들과 友邦의 連繫를 設定하기 위하여 努力한 것이다.<sup>(1)</sup>라고 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엿볼 수 있고, 뿐만아니라 1966年10月 労動黨代表者會議에서『新生獨立國들과 親善 및 協調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계속努力해왔으며, 亞細亞, 「아프리카」및 中立 南美諸國 人民들의 鬪爭을 支持하는 것은 對外政策의 重要한 原則으로 삼고 있다』<sup>(2)</sup>고 말한 것에서 더욱 分明히 알 수 있다. 이처럼 1966年8月「自主路線」을闡明하면서 對中共, 對蘇關係에 있어서 中立을 維持함과 同時に 中立諸國은勿論 自由諸國에게 外交의 浸透努力를 傾注해 온 北韓은 70年代에 접어들어 共產圈의 多元化, 美·中共의 接近 및 關係改善, 美·蘇平和共存의 體制化 및 協調體制構築, 그리고 日·中共關係正常化·緊張緩和와 勢力關係의 構造的 改編이라는 國際情勢의 흐름에 副應,迎合하기 위하여 自主와 實利에 立脚한 多邊外交의 積極的 展開와 아울러 平和指向의 對外姿勢를 露骨化하기에 이르렀다. 70年11月 北韓은「國際情勢는 싸우는 人民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sup>(3)</sup>고 評價한데 이어 71年11月 黨5期 3次全員會議에서는「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決定하였는데<sup>(4)</sup> 여기서는 多邊外交 및 對外 平和攻勢의 積極化는勿論 對美關係의

(1) 極東問題研究所刊, 世界共產圈總鑑, 1971年, pp.919-920.

(2) 崔魯起, “북한의 기본 대외정책과 전략”, 국토통일, 제2권, 제5호(1972.5), pp.63-90.

金日成 1972年 新年辭, 路透社, (平壤), 1972年1月1日.

金日成 1973年 新年辭, 路透社, 1973年1月1日.

(3) 極東問題研究所, 國際問題, 1972年5月, p.53.

(4) 上揭書, p.51, 53. 北韓問題研究所, 北韓, 1973年1月號, p.248 및 256.

改善까지도考慮한 것 같다. 그리고 72年 7月 黨5期 4次 全員會議에서는 黨5期 3次 全員會議에서 採擇한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黨의 政策執行 政令과 今後 對策에 對하여」討議되었는 바, 여기서는 아마도 7·4 南北共同聲明問題와 「니슨」美大統領의 訪中·訪蘇에 따른 多角的인 國際情勢를 分析 檢討하고 北韓의 對美·對日接近政策 摸索을 討議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端的으로 말해서 오늘날 北韓은 「對共產圈外交」와 「對中立國外交」 그리고 「對西方外交」를 併行해 나가는 積極的인 多邊外交를 指向하고 있거니와, 특히 最近 72年 12月 30日 新任 北韓首相 金一이 就任후 行한 첫 演說에서 『北韓은 앞으로 南·北韓에 대해 다같이 公平한 政策을 適用하려는 모든 資本主義國家들과 外交關係를樹立할 用意가 있다』<sup>(5)</sup>고 말한 것은 北韓이 對 西方國家 門戶開放 政策을 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됨은 勿論 實利外交로써 새로운 國際的 狀況에 對處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北韓이 앞으로 美國과 日本에 對한 姿勢에 있어서도 온건한 外交路線을追求할 可能성이 없지 않다는 展望을 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여간 50年代의 韓國戰爭의 經驗과 60年代 初의 中·蘇紛爭은 北韓의 對外認識의 變化를 不可避하게 만들었고, 그와 같은 認識의 變化는 經濟問題와 결들여 國內體制, 나아가서는 새로운 國際情勢下에 外交政策의 變化를 가져오게 했다고 볼 수가 있다.

## 二. 外交目標와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

그동안 北韓은 ① 自體의 防衛體制를 確立하고 安全을 維持시키기 위한 社會主義 陣營과의 團結과 紅帶強化, ② 國際的 承認과 支持를 獲得하기 위한 社會制度의 相異한 國家들과의 紐帶增進, ③ 北韓의 對南赤化에 決定的 劣害要因인 美國의 對韓國 軍事的 支援 및 政治的 支援을 反對하는 反帝·反植民主義闘爭課業, ④ 廣範한 國際的 承認과 支持를 받고 있는 韓國의 地位를 弱化시키고 北韓의 統一方案에 對한 國際的 支持獲得과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를 達成고자 하는 革命의 追求등 이 4가지를 大體로 外交目標로 삼아왔다.<sup>(6)</sup> 따라서 이의 實行을 위해 蘇聯및 中共을 비롯한 共產諸國과의 協調關係 強化와 亞細亞·「아프리카」·中南美와 對中國 浸透를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으로 標榜해 왔음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亦是 紋上<sup>(7)</sup> 바 70年 11月 第5次 勞動黨大會에서 北韓은 「國際情勢는 싸우는 人民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sup>(7)</sup>고 評價한데 이어, 71年 11月 黨5期 3次 全員會議에서 「國

(5) 東亞E報, 1973年 1月 4日.

(6) 김태수, “북한의 대외정책과 그 현황,” 국토통일, 제2권, 5호 (1971.5), p. 120.

金日成 「체마논」新聞 「아르안와루」紙 記者가 提出한 質問에 對한 回答, 職東신문, 1969年 1月 21日.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1969, pp. 118-157.

Joung Won A. Kim, “North Korea's New Offensive,” *Foreign Affairs*, Vol. 48, No. 1 (Oct. 1969), pp. 167-179.

(7) 1970年 11月 12日, 5次 勞動黨大會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서」에서 강조.

際情勢에 대해 提起된 몇 가지 問題」에 對해 決議,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決定한 바 있는데, 여기서 北韓은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勘案, 外交關係에 대한 戰術的인 政策轉換을 폐합으로서 自主·實利外交路線을 推進키로 한 것으로 把握된다.<sup>(8)</sup> 昨今에 急激히 늘어난 北韓의 招請·訪問外交는 이력한 北韓對外政策의 一環일 뿐만 아니라 이는 對西方政策에도 如實히 投射되고 있음을 窺知할 수가 있다. 기실 오늘날 北韓은 西方諸國에 對해서는 政治, 經濟 및 軍事面의 對立의 要素를 重視하고 美國의 反共的 世界政策을 抑制하는 데 있어 提携할 可能性이 있는 所謂「第2 中間地帶」로 보고 同諸國과의 關係改善을 希望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美國을 除外한 西方諸國과 貿易 및 商去來를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北韓의 새로운 움직임은 國際情勢, 特히 韓半島 情勢가 自己들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判斷하여 緊張緩和의 國際趨勢에迎合하면서 國際的 進出을 企圖, 韓國을 國際的으로 孤立시켜 보겠다는 戰術的 轉換인 것이다. 여기에는 그 背景을 이루는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하였겠지만 그 몇 가지 狀況을 살펴보면, ① 70年代에 접어들어 國際政治의 多元化 現象에서 支及되는 急速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北韓政策에는 影響을 주어 北韓의 閉鎖的 特性을 擁護하기 어려운 對內·外 情勢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北韓은 國際情勢의 潮流에 便乘하면서 國際的 進出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開放的인 外交姿勢로 轉換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點, ② 美·中共과 日·中共의 새로운 關係에 能動的으로 對處해야 할 心要性과 同時に 이에 適切히 對應, 北韓으로서는 「2個의 韓國」을 此際에 國際的으로 固定시켜야 할 必要性을 感悟 되었다는 點, ③ 這間 北韓 보다 優位의 立場을 占하고 있는 韓國을 國際的으로 孤立化시키기 위해서는 集中的인 平和攻勢로 나아가 實利外交를 바탕으로 한 現實外交로 積極的인 攻勢를 取해야 한다는 點, ④ 이 같은 平和攻勢로써 駐韓美軍撤收와 UNCURK 解體 등을 催促해야 한다는 點, ⑤ UN 總會에서 南·北韓 同時招請問題의 提起에 對備하여 여기서 北韓의 位置를 有利하게 轉換시켜야 한다는 點, ⑥ 新經濟 6個年計劃(71~76年)의 推進을 뒷받침한 借款, 資本導入등을 위해 實利外交의 展開가 必要했다는 點, ⑦ 그동안 持續되어온 反美 統一戰線形成을 더 積極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點, ⑧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에 따라 非軍事的手段으로 南韓의 共產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美國을 為始한 自由友邦의 韓國支援을 遞斷해야 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 등이다.

如斯한 情況下에서 70年代의 緊張緩和 趨勢에迎合하여 對內의 戰爭準備와는 正反對의 平和攻勢를 積極 展開하는데 狂奔하고 있는 北韓은 根本의으로 現 平和「무드」를 最大限으로 逆利用하여 北韓의 外交勢力 擴張에 汲汲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北韓은 國際的 條件이 어떻게 變化되건 共產化 統一이라는 目的을 拋棄하지 않고 새로운 條件에 對應하는 새로운 戰略과 戰術로 臨하고 있다. 結局 北韓의 積極的인 外交活動은 그들의 基本目標 達成을 위한

---

(8) 197年 11月 15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3차 전원회의 개최.

것이며 이는 窮極的으로 韓國의 共產化 實現에 있음은 疑心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과 同時에 外交活動의 積極化를 追求하기始作한 北韓은 바로 72年을 外交의 치로 設定, 現下 國際情勢가 그들의 革命에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한 判斷을 基礎로 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活潑한 外交活動을 펴 왔던 것이다.

事實上 自主路線宣言 以後 對外政策 展開過程에서 外交의 幅을 擴張할 必要性에 當面했던 北韓이 現今의 70年代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側面과 統一戰略의 政治的 側面 그리고 經濟的 實利를 同時에勘案하여 外交政策의 自己擴張의 展開에 腐心, 「對共產圈 外交」·「對中立國 外交」·「對西方 外交」를 併行해 나가는 多邊外交<sup>(9)</sup>를 積極化하고 있다.

### 三. 北韓의 對地域外交

#### 1. 對共產圈 外交

##### (1) 對蘇關係

60年代初 對中共接近 및 中·蘇粉爭에 있어서도 中共便에 同調하고 있던 北韓은 65年2月 蘇聯 首相「고시킨」의 平壤訪問을 契機로 하여 對蘇關係를 好轉시키기始作하였다. 「고시킨」首相의 平壤訪問時 金日成과의 會談후 發表된 雙方의 共同聲明에서는 ① 蘇聯·北韓의 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② 北韓의 平和統一을 支持하며, ③ 國際共產主義運動의 聚結등을 強調함으로써 北韓·蘇聯間의 關係改善의 길을 見다.<sup>(10)</sup> 그리하여 蘇聯은 62年 以來 中斷되어 온 對北韓援助를 再開하는 2個의 協定을 締結했는데, 하나는 65年5月의 箖事援助 協定이고 또 하나는 그 이듬해인 66年6月 北韓 經濟擔當副首相 李周淵과 民保相 金昌奉등이 蘇聯을 訪問하여 맺은 經濟技術援助協定이다.<sup>(11)</sup> 이러한 對北韓援助再開措置를 反하면서 北韓의 中共路線 離脫을 促進하여 온 蘇聯은 66年3月에 開催된 第23次 共產黨大會에서 「보레즈네프」의 演說을 통해『蘇聯共產黨과 蘇聯國民은 美帝國主義에 反對하며, 民主主義의 原則에 基礎하여 朝鮮統一을 위해 싸우고 있는 兄弟인 朝鮮人民을 全面적으로 支持하고 있다. 우리黨도 全蘇聯人民도 朝鮮人民의 勝利를 達成하여 朝鮮 全體가 統一되어 自由로와 질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다』<sup>(12)</sup>라고 北韓을 支持하였다. 특히 이 大會에 中共은 參席을 拒否하였는데도 北韓은 崔庸健이 參席하여 越南戰에 대한 共產陣營의 統一된

(9)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 p.897.

(10) Joseph C. Kun, "North Korea Between Moscow and Peking," *China Quarterly*, No. 31, July-Sept., 1967, p.48.

(11) 민주평선(平壤), 1966年 6月 22日.

Joungwon A. Kim, "Soviet Policy in North Korea," *World Politics*, Vol. XXI, No. 2 (Jan. 1970) p.250.

(12) 極東問題研究所, 國際問題, 1971年 10月, p.38.

林 建參, 北朝鮮と 南朝鮮, 東京, サイマル出版會, 1971, p.123.

共同行動을 強調하여 間接的으로 中共을 非難하였다.<sup>(13)</sup> 이어 同年 5月 「보레즈네프」는 「볼라디보스도크」에서 金日成과 會談을 가진 다음 蘇聯은 계속해서 北韓과 友好 및 協調關係를 持續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67年 3月에 締結된 軍事 및 技術援助協定에 의거하여 蘇聯은 北韓에 1億 7,800萬「달러」의 軍援을 비롯, 8,900萬「달러」를 67~70年 사이에 提供키로 合意함으로써<sup>(14)</sup> 北韓은 7個年 經濟計劃의 3年 延長을 決定할 수 있었다. 따라서 當時 北韓의 經濟는 蘇聯의 援助 없이는 지탱 할 수 없는 形便이었다고 보면, 經濟事情上 北韓의 中共路線 離脫은 不可避했다고 볼 수 있다.

이무렵 北韓은 66年 8月 所謂 「自主路線」을 宣言,<sup>(15)</sup> 對中・蘇關係에 中立的 立場을 維持하는 政策路線을 表明하여 中共路線 離脫을 合理화시켜가면서 裏面的으로는 對蘇關係를 強化해 나갔다. 北韓이 「自主路線」에 立脚, 對中, 蘇關係에 있어 兩面的인 姿勢를 取하는 가운데 蘇聯은 北韓의 對中共 接近趨勢를 最大限 遏止하려고 努力하였다. 北韓은 自主路線을 適用함에 있어 共產主義者는 兄弟黨의 自主的 活動에 대해 色眼鏡으로 보면 안되며 必要以外의 神經을 써서는 안된다」<sup>(16)</sup> 고 力說, 그에 대한 安全撫을 마련하면서 이를 앞세우고 實利를 追求하겠다는 底意를 露出하였는데, 이는 그간의 親中共政策으로부터 親蘇政策轉換을 合理화하기 위한 하나의 名分이었고 또한 對蘇 經濟 및 軍事的 實利追求를 위한 戰術的 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다.

69年 5月에 蘇聯 最高會議 幹部會 議長 「포드고르니」가 一週日間 北韓을 訪問, 共同聲明에서 「相互協調와 連帶性 強化」<sup>(17)</sup>를 다짐한 후, 同年 9月에 北韓 民保相 崔賢이, 12月 外相 朴成哲 등이 蘇聯을 訪問, 北韓의 「新經濟 6個年計劃」(71~76年)에 대한 支援을 要請한데<sup>(18)</sup> 이어, 70年代에 들어와서는 70年 4月에 蘇聯軍 總參謀長 「자하로프」와 同年 5月에 北韓軍 總參謀長 吳鎮宇의 相互訪問으로, ① 軍事同盟條約 延長에 대한 具體的 問題, ② 蘇聯의 對北韓 軍事支援 問題등에 合意하였다.<sup>(19)</sup> 역시 同年 4月에 崔庸健은 蘇聯을 訪問하여 「례닌誕生 100周年 紀念式」에 參席, 對蘇 友誼를 表한데 이어 同年 9月에는 北韓・蘇聯間に 71~75年間 長期 經濟技術協定이 締結되었다. 그 이듬해인 71年 7月 蘇聯 第一副首相 「마주로프」가 北韓을 訪問, 軍事同盟 5年 自動 延長에 따른 安保支援體制와 紐帶強化를 確認함과<sup>(20)</sup> 同時に 「亞細亞 安保體制 構想」에 대해 力說하였고, 特히 여기서 그는 北韓・蘇聯 友好協力條約 10周年 行事에 參席하여 「社會主義 大原則에 立腳」하여 北韓을 全面 支援

(13) 東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 p.904.

(14) 東東問題研究所, 國際問題, 71年 10月, p.38.

(15) 朝鮮日報, 「自主性을 肯호한다」, 1966年 8月 12日.

(16) 1966年 10月 5日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의 金日成 演說, 「現情勢와 우리 黨의 課業」.

(17) 國際問題, 前揭書, 1971年 10月, p.39.

(18) 上同, p.39.

(19) 上同, p.40.

(20) 國際問題, 1972年 5月, p.49.

하겠다고 다짐하였다.<sup>(21)</sup> 그리고 蘇聯은 70年 11月 北韓 第5次 黨大會에 보내는 祝電에서 『統一을 위한 朝鮮人民의 正義의 戰爭에 兄弟的 連帶感과 情에 넘친 友誼를 품고 있다』고 強調<sup>(22)</sup>, 對北韓에 支援을 約束하기도 하였다. 한편 北韓은 新經濟 6個年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을 위하여 71年 前半期에 蘇聯을 비롯, 東獨, 華蘭, 몽고, 「루마니아」와 각각 71~75年間 長期 貿易協定을 締結하는<sup>(23)</sup> 등 지난 7個年計劃 推進 때 보다 包括的인 共產圈內 交易體系를 다져 놓기도 하였고, 역시 同年 3~4月에 걸쳐 開催된 蘇聯共產黨 第24次大會에는 金一을 團長으로 하는 北韓代表團이 參加하여 蘇聯의 兄弟的 支援을 讚揚하기도 하였다.

72年에 朴「덕수」大統領의 中共訪問時期인 2月에 北韓 外相 許淡은 東歐 諸國과 蘇聯을 訪問, ◦ 때 蘇聯은 韓國의 現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代置하려는 北韓의 提案을 歡迎하면서 許淡과 蘇聯 外相「그로미코」間に 發表된 共同聲明에서는 「蘇聯이 北韓의 統一政策을 全幅的으로 支援할 것이며 兩國間의 政治·經濟·軍事·科學·技術等의 諸部門 關係를 一層 強化할 것』에 對해 合意하였다.<sup>(24)</sup> 이어서 同年 9月에 北韓을 訪問한 「카투세프」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 秘書는 演說을 통해 『民族的 基本課業 解決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強化함에 있어서 朝鮮人民은 朝鮮人民의 兄弟的 理解와 支持를 언제나 期待할 수 있다』고 闡明<sup>(25)</sup>, 對北韓 紐帶鞏固化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經濟計劃과 關聯, 對蘇關係에 있어 實利獲得에 注力하여 그간 烏기精油工場을 비롯한 現在 建設中인 30餘個의 重工業 建設에 所要되는 原資財 및 技術導人을 72年에도 蘇聯에 계속 要請해 왔다.<sup>(26)</sup>

이렇게 보면 蘇聯의 立場에선 對中共牽制를 위해서도 對北韓接近이 必要한 것이며, 反面 北韓 역시 「實利追求를 위해 現實的 政策路線이 必要한 만큼 北韓과 蘇聯의 關係는 앞으로도 「이데올로기」와 國家關係를 政策的으로 調整하면서 現狀維持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對北韓支援은 如何한 形態로던 持續될 것이며, 北韓도 對蘇關係의 維持를 積極 圖謀할 것이다.

## (2) 對中共關係

62年 以降 中共과의 密接한 關係를 維持해오던 北韓이 對中共 一邊倒로 인한 對蘇關係의 惡化가 自己들의 安保 및 經濟發展計劃에 重大한 威脅으로 波及되었음을 切感함으로써 65年 부터 親蘇政策을 폐나가면서 疏遠해졌던 北韓과 中共의 關係는, 69年 後半 中共 文化革命의 收拾과 함께 改善되기 始作하였다. 이듬해인 70年 4月 中共首腦 周恩來의 平壤訪問으로 北

(21) 國際問題, 1971年 10月, p. 40.

(22) 上同, p. 40.

(23) 國際問題, 1972年 5月, p. 49.

(24) 北韓, 1973年 1月號, p. 192.

(25) 上同, p. 192.

(26) 上同, p. 192.

韓·中共間正常關係가 회복되는 整地作業이 이루어졌다.<sup>(27)</sup>

69年7月 北韓·中共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締結 8周年에 즈음하여 로동신문은『朝鮮人民은 臺灣을 解放하기 위한 中共人民의 戰爭을 積極 支持하고 共同의 敵 美帝를 두목으로 하는 帝國主義의 侵略및 戰爭策動에 反對하며 亞細亞와 世界平和및 安全을 위해 中共人民과 하나의 聖線에서 싸울 것이다』<sup>(28)</sup>라고 밀함으로써 關係改善의 意圖를 表示했고, 이어 同 10月에 崔庸健과 朴成哲이 北京을 訪問, 中共創建 20周年에 參席함으로써 双方間に 和解「무드」가 造成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2月과 3月에 각己大使을 派遣, 關係正常化에 들어갔다. 이러한 北韓·中共의 關係好轉은 中共側의 立場에서는 這間 文化革命期間中 疏遠했던 對北韓關係를 回復시킬 必要性 뿐만 아니라 北韓의 對蘇接近關係를 牽制해야겠다는 意圖가 內包되어 있었고, 한편 北韓의 立場에서는 韓半島를 圍繞한 國際情勢의 變化, 특히 南韓三角關係인 韓·美·日體制形成 움직임을 相對的으로 安保의 威脅으로 느낌으로써 對中共接近이 必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0年4月 周恩來의 平壤 訪問時의 共同聲明에서는 中共은 北韓의 自力更生, 經濟建設 政策및 防衛政策에 敬意를 表하며, 北韓의 祖國統一方針을 全的으로 支持한다』<sup>(29)</sup>고 하였고 이에 대해 北韓은『中共이 資本主義를 復活시키려는 帝國主義와 現代 修正主義의 陰謀를 粉碎하고 文化革命을 成果的으로 遂行하고 있음을 祝賀한다』고 하였다.<sup>(30)</sup> 이것은 69年11月 臺灣과 韓國의 安保는 日本에 繫要하다고 밝힌「尼克·佐藤」共司聲明으로 安保에 威脅을 느낀 北韓이 이에 對處하기 위한 共同紐帶를 再確認하고 強化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또한 同訪問에서 周恩來는 演說을 통해 北韓과 中共은「唇齒의 關係」에 있는 隣邦이라고 指摘한 것을 보더라도 北韓의 防衛問題가 中共의 安保에 關한 問題임을 示唆해주고 있다. 따라서 70年에 들어서 北韓의 中共接近도 실상 70年の「尼克·佐藤」共同聲明에 刺戟, 이것이 그 動機가 되었지만 本質的으로는 北韓防衛를 위해선 中共과의 軍事同盟 關係의 正常化가 必要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70年 月 周恩來의 平壤訪問 후 곧 이어 6月과 7月에 걸쳐 北韓·中共 雙方의 軍事및 外交代表團의 交換訪問이 實現되고<sup>(31)</sup> 이미 蘇聯과 71~75年間 經濟技術協定이 締結(70年9月)된 犀況에서 10月 北韓은 中共과 經濟援助및 71~76年間 長期通商協定을 맺어 兩面의 인 紐帶關係樹立에 腹心하였다. 이듬해인 71年 7月에는 朝·中相互援助條約(軍事條約)締結 10周年 慶祝行事의 一環으로 中共 國務院 副總理 李先念과 北韓 對南工作 金仲麟이

(27) Tai Sung An, *Mao Tse-tung's Cultural Revolution*, Pegasus, 1972, p. 92. Joungwon A. Kim, "Pyongyang's Search for Legitimacy," *Problems of Communism*, Jan.-April, 1971, p. 40.

(28) 朝鮮勞動新聞, 1969年 7月 1日.

(29) Tai Sung An, *op. cit.*, p. 92.

(30) 朝鮮勞動新聞, 1969年 7月 1日.

(31) 商誌, 世界共產圈總鑑, p. 909.

相互訪問하니 血盟關係를 再確認하기도 하였다.<sup>(32)</sup> 同期間의 前半期에 蘇聯 및 東歐匪과 各各 71~75年間 長期 貿易協定을 締結한 北韓은 8月에 中共과 經濟援助 協定을 締結하였다.<sup>(33)</sup> 特히 이 무렵 「尼克松」大統領의 中共訪問 決定이 發表되자 北韓은 同年 7月 18日「로동신문」을 通過해서 「오늘날 國際舞臺에 있어서 美帝의 侵略과 戰爭政策에 反對하는 戰爭 보다 더 緊急을 要하는 課題은 없다』고 말하면서『『美帝는 各種 手段으로 社會主義國家와 民主 獨立國家에 대해 思想·文化浸透를 強化하고 있다』』<sup>(34)</sup>고 言明함으로써 美·中共接近이 亞細亞의 反美·日共同戰線에서의 中共 離間을 劃策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그려면서 北韓은 同年 8月 6日「시하누크」歡迎群衆集會에서의 金日成 演說에서『『尼克松』은 지난날 朝鮮戰爭에서 敗北한 美帝侵略者들이 板門店에서 虎旗를 들고 나온듯이 北京에 虎旗를 들고 찾아오게 됐다』』<sup>(35)</sup>고『『尼克松』大統領의 中共訪問을 評하면서 美·中共接近을 받아드리는 態度를 取하였다. 이어 同年 8月에 北韓軍과 中共軍의 參謀總長 吳振宇와 黃永勝은 北京에서 發表한 共同聲明에서『兩國人民, 軍隊間의 紐帶의 一層 繁固化, 共同의 敵인 美·日에 대하여 끝까지 戰爭할 것』』<sup>(36)</sup>을 謄明함과 同時に 中共은 北韓의 安保支援弱化에 대한 危懼心을 解消시키기 위해 9月에 對北韓 無償軍事援助協定을 締結하였는 바, 이 協定에서 中共은 戰鬪機·戰車·裝甲車·砲艦·快速魚雷艇등을 提供키로 하고 西海를 통한 北韓의 對南浸透를 支援하며 日本軍事力 膨脹에 對應하는 共同戰略 檢討를 約定하였다.<sup>(37)</sup>

한편 역서 同 8月에 中共을 訪問한 「뉴욕·타임즈」의 「퀘스턴」記者와의 會見에서 首相 周恩來는『韓國에는 다만 休戰協定이 있을 뿐 平和條約은 없으며 戰爭狀態는 終熄되지 않았다. 韓國問題의 解決을 위해선 南·北韓間의 和解를 가져오고,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向해 나갈 方途가 摸索되어야 한다. 이것은 時間을 要하는 것이다 이 要求는 合理的인 것이다』<sup>(38)</sup>라고 言及했는가 하면 同 11月의 中共의 UN 代表團長 喬冠華는 UN 總會에서의 첫 演說을 통해『UN이 韓國問題에 대해 採擇한 모든 非合法的인 決議를 無效로 해야하며 UNCURK는 解體되어야 하고, 美國을 爲始한 모든 外國軍隊는 韓國에서 撤收해야 한다』<sup>(39)</sup>고 說破, 北韓의 宣傳的 代辦役割을 하였다.

72年 2月 「尼克松」大統領의 中共訪問 後 發表된 共同聲明에 對하여 北韓은 3月 4日「로동신문」을 通하여『雙方은 相互 立場斗 態度에서 原則의 差異가 있으나 平和共存의 原則에

- 
- (32) 北韓 1973年 1月, p.62.  
    國際 題, 1972年 5月, p.49.  
(33) 國際 題, 1972年 5月, p.49.  
(34) 朝鮮 1972年 7月 19日.  
(35) 朝鮮 1972年 8月 6日.  
(36) 北韓 1973年 1月, p.262.  
(37) 國際 題, 1972年 1月, p.50.  
(38) 北韓 1973年 1月, pp. 262-263.  
(39) 한글 1971年 11月 20日.

基礎해서 關係를樹立해야 한다는데 同意했으며 美帝는 平和를 侵略除去라고 말하나 이것은 社會主義 나라들을 離間시키려는 것이다. 北韓은 美帝와 日本軍國主義者の 侵略을 反對하고 自主統一를 위해 힘차게 나갈 것이다』라고 論評, 同 聲明을 原則의으로 歡迎하면서도 急進的 美·中共接近으로 인한 北韓·中共間의 關係弱化를 警戒하는 態度를 보였고, 또한同年 9月에 있던 日·中共 國交樹立에 대해 10月 3日 「로동신문」은 日·中共 關係正常化를 歡迎하면서 서울의 中·蘇間의 異見이 무마되기를 願한다고 示唆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國家間의 敵對關係를 보는 것을 願치 않으며 그들이 善隣關係를 回復하기를 願한다』<sup>(40)</sup> 고 論評하였다. 이러한 美·中共和解와 日·中共 接近趨勢속에 同年 7月 中共側은 朝·中相互 援助條約 11周年紀念行事에서 人民解放軍 政治部 副主任 李德生이 『中·朝人民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友誼를 發展·強化하고 서로 支持 聲援할 것』<sup>(41)</sup> 임을 強調함으로써 韓國의 背後勢力인 美·日과의 關係改善과는 拘碍됨이 없이 對北韓支援을 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中共은, 南·北韓間의 7·4共同宣言에 대하여 7月 8日 「人民日報」를 통해 『이번 南·北韓會談이 이루어진 積極的인 成果는 金日成을 비롯한 朝鮮勞動黨과 政府의 自主的 平和統一路線의 매우 큰 勝利이다. 朝鮮人民은 이미 祖國의 平和統一을 圖謀하는 길을 스스로 选择了. 이렇게 함으로써 朝鮮의 内部問題에 干涉하는 美帝의 一切 구실을 除去했다. 美帝는 南韓에 駐屯하는 軍隊를 모두 撤收시키고, 日本軍國主義 力을 南韓에 끌어들이려는 活動을 中止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主統一의 歷史的 潮流는 如何한 力도 이를妨害할 수 없다』<sup>(42)</sup>고 말함으로써 이에 대한 大大的인 歡迎을 表하였다.

이와같은 南·北韓間 對話의始作과中共의對美·日接近이라는 國際情勢의 激變속에 72年 12月 中共 外相 姬鵬飛는 北韓을 訪問, 金日成과 外相 許淡과 一連의 會談을 열어 注目을 끌었는데, 12月 25日 平壤에서 發表된 共同聲明의 要旨를 보면<sup>(43)</sup> 다음과 같다. ①雙方은 國內情勢와 國際問題들에 關한 見解를 交換하고 友好 및 協調關係 強化策을 討議했다. ②兩側은 「맑스 레닌」原則과 「푸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立脚, 兩國民의 關係가日益 密接해지고 있음에 滿足을 表했다. ③中共側은 外勢에 干涉없이 祖國獨立 및 平和統一을 成就하려는 北韓人民의 正義의 戰爭에 對한 全的인 支持를 表明했다. ④雙方은 美國의 越南休戰協定 調印拒否와 越南戰 激化를 준엄하게 紛彈, 美國侵略者와 싸우는 「인도차이나」人民들의 救國鬪爭을 支援할 보다 強力한 決意를 表明했다. ⑤雙方은 全世界人民의 反帝鬪爭과 民族解放運動 및 獨立主權 守護鬪爭에 對한 確固한 支持를 表明했다는 것 등이다. 또한 北韓內閣이 베平 視宴席上에서의 演說을 통하여 姬鵬飛는 南·北調節委員會의 첫 會議가 「새로운 進一步를

(40) 한국의보, 1972年 10月 4日.

(41) 北韓, 1973年 1月, p.192.

(42) 上同, p.263.

(43) 東亞日報, 1972年 12月 26日.

서울의문, 1972年 12月 26日.

記錄했다고』 말하고『北韓勞動黨과 政府가 꾸준히 堅持해 온 祖國의 獨立및 平和統一政策이 全的으로 올바른 것임은 事實이 立證한다』고 力說하면서 「平和統一의 大義는 團結과 協調가 維持될 때 비로소 圓滑하게 成就될 수 있다」고 強調하여 中共의 北韓에 대한 계속적인 支持와 變함 없는 友誼를 보이기도 하였다.

北韓의 高位幹部 鄭準澤의 1973年 1月 死亡에 對하여 中共 主席대리 邓力群 및 周恩來首相은 金日成으로 吊電을 보내온 바 있다. <sup>(44)</sup> 또한 北韓外相 許淡은 73年 2月 14日 中共을 訪問하고 ‘美國에 對한 政策’을 中共側에 率直히 傳한 것으로 보인다. <sup>(45)</sup> 北韓은 現時點에서 韓半島의 軍事境界線을 둘러싸고 「유엔」軍과 對決하는 狀態를 바라지 않고, 「유엔」과의 休戰協定。代替하는 韓國과 “平和協定”을 맺을 構想을 밝히고 있다. <sup>(46)</sup> 許淡은 訪中한 「기신자」 美大統領補佐官에 이 點을 傳하여 줄것을 中共側에 要請한 것으로 傳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現時點에서 中共과 北韓關係는 緊密化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北韓은 對中共關係에 있어 「이데올로기」에 보다 置重하면서 亞細亞 共產主義者 團合으로 反美・日共同戰線에 의한 韓・美・日協力體制에 맞서는 本質問題에 力點을 두면서 所謂 自主的 平和統一追求에의 支援勢力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北韓은 역시 對蘇紐帶關係를 持續시키면서 對中共關係를 強化, 發展시켜 나아갈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① 「레닌, 스탈린」主義에 가장 執念이 强한 政權이라는 點, ② 中・蘇를 다 같이 韓國을 共產化하는데 不可缺의 背景 내지 支援勢力으로 보고 있다는 點, ③ 自體의 防衛를 爲해서는 中・蘇와 同盟내지 集團防衛體制를 同時に 強化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 ④ 全般的 對外政策의 要求로부터 蘇聯 및 中共과의 關係를 同時に 發展시키는 것이 必要하다는 點, ⑤ 現在의 權力 安定을 保障하기 위해서도 中・蘇 어느一方과의 關係가 惡化되어서는 안된다는 點등에 立脚, 將次도 對中・蘇關係에 있어 同時의 紐帶 強化에 努力할 것이라 함은 充分히 窺知할 수가 있다.

## 2. 對中立國 外交 및 對西方 外交

### (1) 對亞・阿外交

이미 앞서 言及한 바 있지만, 北韓對外政策 基本路線의 또 하나의 側面은 亞細亞・「아프리카」 및 中南美의 中立諸國과 親善 및 友好關係를 增進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路線은 1956年 4月에 開催된 北韓 労動黨 第3次 黨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報告演說에서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金日成은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의 平和的 共存에 대한 「레닌」의 原則을 堅

(44) 朝鮮日報, 1973年 1月 17日. 北京周報, 1972年 32號.

中共指導者들은 1972年 9月 8日 北韓 24周年 記念日에 热烈한 祝電을 보낸 바 있다.

(45) 日本 每日新聞, 1973年 2月 24日.

(46) 日本 每日新聞, 1973年 1月 13日.

北韓의 平和條約 提案을 韓國이 拒否하였다고 報道한 바 있다.

持하며 우리와 좋은關係를維持하려는 모든 나라들과友邦的連繫를 맺기 위하여努力하여야겠다』고<sup>(47)</sup>闡明하였는데, 여기서特記할 것은「政治的連繫」와 함께「實務的連繫」를強化하겠다는 것과印度・『벼마』・『인도네시아』・日本등의人民과의親善과協調를強化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北韓의對亞・阿外交의擴大는 이미이때에基本路線으로決定되었던 것이다. 그後58年以後64年에 이르는中・蘇對立의激化와共產圈內多元化的期間에北韓은中共側에密着,中共의對外進出에便乘하여亞細亞・『아프리카』諸國과의關係改善에熱中하였고. 이期間에北韓은『말리』,『기니아』,『예멘』,『알제리아』,『우간다』,『아랍』共和國,『카나』,『인니』,『모리타니아』,『콩고』(브라자빌)등10個國과正式外交關係를樹立하였고,印度,『벼마』와는領事關係를樹立하였다.<sup>(48)</sup>

다음에65年以後69年에이르는,이른바『自主路線』에立脚하여對中共一邊倒에서脫皮하고對蘇對中共等距離外交을自主的으로決定하며大國의共產黨이나小國의共產黨도同一한位置에있으므로마땅히自己民族과國家利益에맞도록獨自의인路線을採擇해야한다고主張하면서,蘇聯과中共의同時的支援을얻어꾸준히中立國과의關係를擴張하여『탄자니아』,『시리아』,『부룬디』,『소말리』,『이락』,南部『예멘』,赤道『기니아』,『잠비아』,『차드』,『수단』,中央『아프리카』등11個國과正式外交關係를tree立하였고,『파키스탄』,『네팔』,『가풀』과는領事關係를맺었다.<sup>(49)</sup> 특히北韓은이期間에『프랑스』를비롯,『쿠웨이트』,『레바논』,『스위스』,『오스트리아』,『핀란드』등6個國에貿易代表部를設置,實務的關係를擴大하였다.<sup>(50)</sup> 이미前述한바도있지만,66年10月5日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金日成『新生獨立國들과親善및協調關係를發展시키기위하여계속努力해왔으며『아시아』・『아프리카』및中・南美諸國人民들의鬪爭을支持하는것은對外政策의important한原則으로삼고있다』고<sup>(51)</sup>強調한點에서도알수있듯이이처럼北韓이亞・阿및中・南美諸國과의關係를重要視하고있는것은,北韓의安保및所謂世界革命의一環이라는立場에서美國을反對하는廣範한共同戰線을形成하자는第一次의in要因이있고,한편北韓經濟의對外依存度가낮아지고經濟的으로自立度가높아짐에따라同地域諸國과의通商關係를맺고자하는데,目的이있기도하지만,오히려中立및自由陣營과의通商은political目的이우선으로되고있다고할수있으며北韓의國際的地位向上과韓國의國際的孤立化그리고UN에서의北韓에대한支持獲得이라는바로그들의外交目標을達成코자하는데그底意가

(47) 金日成,『南朝鮮革命と祖國の統一』,東京,未來社,1970,p.191.

最高人民會議第2期第1回會議서行한演說,北韓年鑑,1968年,p.265.

(48) 世界共產圈年鑑,pp.919-921.

(49) 上同,pp.921-922.

(50) Byung Chul Koh,op.cit.,pp.169-182.

(51) 金日成著作集,第4卷,東京,未來社,1971,pp.100-187.

있는 것이다.

70年代 들어서자 北韓은 이러한 對亞·阿外交에 더욱 拍車를 加하여 70年 6月에 「말디브」와 同 7月에 「세일론」과 이듬해인 71年 10月에 「시에라레온」과 그리고 同 12月에 「말타」와 각각 大使交換 外交關係를樹立했고 同 10月에 「모리셔스」와는 領事關係를, 「리비아」와는 貿易代表部 設置關係를 이루어 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北韓은 「말라가시」·「레우니안」등 「아프리카」東部 島嶼國에의 進出발판을 構築함과 同時に 「기네」灣에 沿한 「가나」·「다호메이」·「크메리아」·「나이제리아」·「토고」등 西部 「아프리카」諸國에 대한 進出國를 마련하게 되었고, 72년에 들어와서 이들 國家中韓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카메룬」은 3月에 北韓과도 大使級 外交關係를樹立하였다.<sup>(52)</sup> 이어 同 8月에 역시 韓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우간다」와 外交關係樹立에 합意한 것을 비롯, 同 9月에 「리베리아」와 「세네갈」, 10月에 「어퍼볼트」, 그리고 12月에는 「자이레」(前 칸샤스·콩고)와 각각 外交關係樹立에 합意하기에 이르렀다.<sup>(53)</sup> 이와같이 北韓은 韓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國家까지도 果敢히 浸透, 對「아프리카」外交攻勢를 加熱化하고 있는데, 이는 UN에서의 支持勢力 確保와 北韓을 하나의 國家로 認定받기 위한 努力 및 國際 共產主義運動을 北韓도 主導的으로 遂行하는 것처럼 認識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所謂「主體思想」에 立脚한 外交라는 印象을 굳히려는데 그 主된目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事實上 「아프리카」新生國들은 우선 같은 植民地 國家였고 被壓迫民族이었다는 點과 아직 後進의 태두리를 脱皮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緣由하는 弱少國間의共同戰線이 어느 程度 必要할 뿐만 아니라 新植民帝國主義에 대한 憎惡感이 크게 作用함으로써 中共의 對「아프리카」外交攻勢에 便乘한 北韓의 對「아프리카」外交政策은 큰 進展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마 68年 「쿠웨이트」와 「레바논」에 각각 貿易代表부를 設置한 北韓은 對中東 浸透에도 這間 注力하여 왔는데, 「北韓·아랍親善協會」까지 發足시키면서 「카이로」를 前進基地로 삼아 對中東 浸透에도 狂奔하고 있다. 72年에 「에집트」가 北韓大使 「김용선」을 反政府 學生 「네모」에 關聯되었다는 理由로 忌避人物로서 追放한 事例등은 北韓이 얼마나 對中東地域 浸透에 發狂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함께 北韓은前述한 바 71年 12月 地中海의 「말타」와도 外交關係樹立을 보았고, 72年 11月에는 「파키스탄」과도 修交에 합意한 것을<sup>(54)</sup> 비롯하여 北韓은 「필리핀」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72年에 洪水로 發生한 「필리핀」水災民들에게 一萬弗 상당의 救護物資를 提供하면서<sup>(55)</sup> 「필리핀」과의 關係改善에 努力하는 등 對亞細亞外交에도 積極化하고 있다. 이미 71年 2~3月에 걸쳐 北韓은 副首相 鄭準澤, 最高人民會議 常任 副委員長 康良煜, 副外相 金容決등이 각각 이끄는 代表團을

(52) 北韓 1973年 1月, p.205.

(53) 上同 p.206.

(54) 上同 p.206.

(55) 東南亞地域의 西方國家에 대한 接近의 새로운 樣相을 띠고 있다.

「아프리카」中東, 東南亞地域에 派遣, <sup>(56)</sup> 大規模의 外交活動을 展開한 바 있다. 北韓 副主席 康良煜은 73年 2月 「사리아」를 訪問하고 3月初에는 埃及을 訪問, 文化, 經濟, 軍事分野에 결친 諸般問題를 討議하였다. <sup>(57)</sup> 外相 許淡은 3月 初 「알제리아」를 訪問, 兩國間의 問題를 諮議하였으며, 北韓과 「감비아」는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는데 合意에 이르렀다. <sup>(58)</sup>

따라서 北韓의 對「아프리카」外交攻勢가 燥烈해질 것은勿論, 이와 함께 對中東, 對亞細亞外交活動도 積極的으로 展開될 것이다.

## (2) 對中南美 外交

對「아프리카」浸透에 血眼이 된 北韓은 中南美에도 積極的인 外交攻勢를 펼쳐, 72年 6月 이미 韓國과 修交中인 「칠레」와 正式 外交關係를 <sup>(59)</sup> 樹立함으로써 對中南美 進出據點을 마련하였다. 이는 60年 「쿠바」와 外交關係를 맺은데 이어 中南美에서의 두번째 修交이다. 이로써 北韓은 南美諸國에 對한 外交攻勢의 새로운 段階에 突入하게 된 것이며, 이를 契機로 北韓은 「칠레」以外에도 「우르과이」·「알젤틴」·「페루」등에 據點確保를 위해 腹心하고 있다. 실상 70年 8月과 71年 8月에 通商代表團을 「페루」에 派遣했던 北韓은 이 때 通商및 文化關係樹立과 外交關係의 樹立을 提議한 바 있었다. 이미 70年 11月에 通商代表部를 「칠레」에 設置한 北韓은 72年 6月 1일 「칠레」와의 修交 合意후 며칠이 지난 6月 15일에 「칠레」와의 經濟 및 技術援助와 72~73年間 貿易協定을 平壤에서 調印함으로써 「칠레」와의 經濟의 紐帶를 더욱 強化하였다.

「라틴·아메리카」諸國이 民族主義 내지 經濟的 自覺에 눈을 뜨고 美國의 影響下에서 漸次 脫皮하려는 努力이 增大되자 北韓은 이를 奇貨로 接近策을 積極 模索하게 되었는데, 北韓의 對南美 外交戰術은 먼저 南美諸國의 共產黨과 連繫를 맺으면서 우선은 民間 「베이스」의 使節團을 交換하든가 또는 親北韓人士를 包攝, 親北韓團體를 構成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 나라 政府에 壓力を 加하여 北韓과의 文化交流, 經濟交流를 앞세워 外交關係樹立의 段階에 까지 工作을 進行하는 것이다. 中南美地域도 「아프리카」地域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浸透에 狂奔하는 地域이며 실상 北韓은 中·南美地域에 퍼져 있다는 僑胞들을 糾合, 第二의 朝總聯을 만들겠다고 公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같이 對中·南美 浸透에 腹心해온 北韓은 72年 11月에 「가이아나」와 貿易協定 및 科學技術協調協定을 平壤에서 調印, <sup>(60)</sup> 對南美 浸透의 幅을 넓히기도 하였다. 韓國과 이미 修交中인 「가이아나」와 北韓 사이에 이 二個의 協定이 締結된 것은 實質的인 交流에 앞서 北韓이 「가이아나」에 通商代表部 設置 및 「가이아나」朝鮮親善協會의 設置의 可能性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將次 雙方間에 修交妥結의 可能性도 없지 않음을.

(56) 京鄉新聞, 1972年 3月 20日. 北韓, 1972年 12月, p. 243.

(57) 創鮮日報, 1973年 3月 5日.

(58) 上同. 訪問外交로 北歐등 韓國을 承認하고 있는 國家들도 北韓도 承認하는 國家가 늘고 있다..

(59) 北韓, 1973年 11月, p. 205.

(60) 國際問題, 1973年 1月, p. 10.

意味해 주는 것이다.

北韓은 71年 2月에 副首相 朴成哲을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을 中·南美地域에 派遣, <sup>(61)</sup> 大規模의 巡訪外交를 展開한 바 있지만, 이러한 北韓의 積極的인 對中·南美外交는 앞에서 이미 달한 바, 56年 4月의 第3次 勞動黨大會에서의 金日成의 演說 그리고 66年 10月의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의 『亞細亞·「아프리카」 및 中·南美諸國 人民들의 戰爭을 支持하는 것은 對外政策의 重要한 原則으로 삼고 있다』고 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闡明하고 있는 北韓 外交의 基本路線에 따라 展開되고 있는 것임은勿論이다. 71年 봄 北韓이 「멕시코」에서 「체릴라」活動을 擲縱하다 失敗로 끝난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北韓의 對中·南美浸透의 努力은 더욱 增加될 것이다. 事實上 UN에서 亞·阿 및 中南美地域 國家가 차지하는 比重은 어떤 나라도 無視할 수 없는 狀況이고 보면, 北韓으로서는 韓半島 共產化 統一遂行을 위한 支援勢力으로 利用함은勿論 UN內에서의 北韓支持勢力 確保를 위해서도 對中·南美外交의 重要性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 (3) 對西 외교

오늘날 北韓의 外交는, 共產圈에 대해서는 既存의 友好關係를 더욱 發展시키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으며, 中立·非同盟國家 및 西方諸國에 대해서는 關係改善에 重點을 두고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北韓은 71年 11月 勞動黨 5期 3次 全員會議에서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決定, 國際的인 環境 變化에 適應하는 對外政策을 展開하게 되었고, 그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 對內적으로는 南·北韓의 對話 推進이며 對外적으로는 西方國과의 接近政策의 試圖이다. 72年에 北韓은 日本은勿論 美國의 言論人과 學者까지 招請, 이른바 人民外交를 展開하여 門戶開放의 實例를 보여 주었고 金日成은 外國 言論人과의 會見을 통해 美國과 日本에 次次 門戶開放의 姿勢를 取할 것임을 表明하기도 하였다.

기실 北韓은 美國을 除外한 西方諸國에 대해서는 西方陣營의 政治, 經濟 및 軍事面의 對立의 要素를 重視하고 美國의 世界政策을 壓制하는데 있어서 提携할 可能성이 있는 「第2中間地帶」로 <sup>1</sup>하고 同諸國과의 關係改善을 希望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의으로는 日本을 包含한 西方諸國과의 政治關係를 맺는 일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點에서 通商關係의 開拓 및 增進에 外交努力를 集中하고 있으며 經濟關係의 密接化를 土臺로 삼아 將來의 政治關係 設定을 노리고 있다. 北韓의 對西方 外交는, 資本主義國家相互間의 矛盾 對立關係를 利用함으로써 韓國을 弱體化시키고 北韓을 相對的으로 強化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動員되는 外交戰術이 所謂 人民外交이다.

먼저 北韓은 外交網擴張의 一環으로 北歐諸國에 대한 外交攻勢를 積極化, 이들 國家와의 關係擴大에 急進展을 이룩하였다. 이미 69年에 「핀란드」에 貿易代表部를, 70年 5月에 「스

(61) 京鄉新聞, 1972年 3月 20. 北韓, 1972年 12月, p. 243.

웨덴」에 公報館을 設置한 北韓은 그 以後 이 地域에다 貿易代表部 및 公報館을 5個國에 設置, 外交關係의 初步的 段階를 마련해 놓는데 成功하였다. 特히 그간 北韓承認을 要求하는 現象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노르웨이」・「덴마크」・「아이스랜드」등과는 最初의 公式 接觸을 가지면서 北歐地域에 民間級 公報館을 設置하였고,<sup>(62)</sup> 特히 72年 8月 平壤을 訪問한 「노르웨이」外務省 代表團은 北韓과의 通商交易 및 外交關係樹立 可能性을 打診하기도 하였다.<sup>(63)</sup> 그리고 이 보다 조금 앞서 同 6月 「핀란드」共產黨 中央委員會 委員團이 北韓을 訪問<sup>(64)</sup>, 雙方間의 經濟, 文化등의 交流 및 紐帶強化, 北韓의 平和統一案에 대한 支持, 北韓의 IPU 加入支持, 雙方間 正式修交段階에 까지 이끌기 위한 方案등 縣案問題에 대하여 多角的인 討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10月에는 역시 「핀란드」人民民主主義聯盟에서 北韓을 訪問한 후, 뒤이어 11月에 「덴마크」外務省 代表團의 平壤訪問이 있었다.<sup>(65)</sup> 이미 北韓은 72年 2~3月에 最高人民會議 「그룹」書記長 길국훈을 團長으로 한 代表團을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등 北歐諸國에 派遣,<sup>(62)</sup> 이 地域에서 大大的인 巡訪外交를 展開한 바 有 있는데, 北韓의 北歐諸國에 對한 外交는 急進展하면서 큰 成果를 올리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貿易代表部를 67年에 「프랑스」에, 69年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각각 設置한 北韓은 「만수대」藝術團을 72年 2月에 「프랑스」와 「스위스」에 보내 文化的 親善強化에 努力하였는가 하면, 11月에 「스페인」共產黨 代表團과 「프랑스」國民會議 代表團을 각각 北韓에 招請, 友好關係增進에 注力하기도 하였다.<sup>(66)</sup> 그리고 71年 9月 北韓은 英國에 대하여 4千萬 「글라」借款申請을 하고 英・朝貿易協會를 創立하여 雙方 貿易代表團이 相互 訪問하는 등 對西方 交易擴大에 힘을 기울였다.<sup>(67)</sup> 이와 같은 北韓의 對西歐 浸透活動의 急展開는 西歐諸國의 漸增하는 實業主義的 態度와 이들 國家들이 分斷國에 대한 同時修交에 好意의 反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의 對西歐諸國에 대한 浸透樣相은 親善團體의 結成, 文化交流, 著名人士의 招請訪問, 公報館 및 貿易代表部 設置등 從來의 正常의 「패턴」을 擇하여 왔으나 最近에는 同時修交 戰略을 果敢히 展開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sup>(68)</sup>

이러한 北韓의 對西歐 外交에의 積極的인 展開가운데 特히 注目할 것은 韓國과 같은 分斷國인 西歐에 對하여 北韓이 修交希望을 表示한 것이다. 지난 7月 北韓 副首相 金萬金이 알

(62) 北韓, 1973年 1月, p.193. 京鄉新聞, 1973年 3月 27日, 北歐 5國外相會議 北韓承認 問題論議.

(63) 朝亞日報, 1972年 8月 14日.

(64) 北韓, 1973年 1月, p.206.

(65) \_同, p.206.

(66) \_同, pp.205-206.

(67) 國際問題, 1972年 1月, p.50.

(68) 北韓, 1973年 1月, p.193.

체리아」獨立紀念式에 參席, 여기서 西獨 社民黨의 「비쉬냅스키」와 非公式으로 만나 北韓은 西獨과의 政治關係를 改善하기를 希望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sup>(69)</sup> 이는 公式的인 發言이 아니라 하더라도 結局 北韓側의 對西獨 政策에서 나온 基本戰略으로서 어느 程度 北韓側의 意思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對西獨 外交關係樹立에 關한 北韓의 意圖는 韓半島 固定化 趨勢를 積極화시켜 두개의 韓國論을 일단은 肯定시켜 놓자는 것이며, 西獨·中共接近에迎合하여 北韓의 柔軟外交 戰略을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連結시키려는 努力이라 할 수 있다. 이런 點을勘案한다면, 北韓은 西獨 뿐만 아니라 西歐諸國과의 政治關係改善에 投車를 加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北韓의 對西方 柔軟外交 戰略은 急「泰波」로 推進될 것이다.

#### (4) 北韓對 日本關係(北韓의 對日外交)

##### 1. 經濟交流 關係

日·北韓 經濟交流 關係에 있어 特記할 만한 것을 살펴보면 71年 10月에 日本의 社會黨·公明黨·共產黨等 共同戰線은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發起하여, 11月에 自民黨의 久野忠治議員을 委員長으로 246名의 衆·參議員이 參加한 所謂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結成된 後 이듬해 '72年 1月에 이들중 久野議員을 團長으로한 11名의 議員團은 北韓을 訪問, 「日本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貿易促進에 關한 合意書」라는 이른바 覺書貿易協定을 締結하였는데, 그 合意書 文書內容은 76年까지 日本과 北韓의 貿易量을 現在의 7~8倍인 5億「달러」程度로 擴大시킬 것을 包含해 이를 覺書貿易의 形式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각各 貿易代表部를 設置할 것과 東京과 平壤에서는 商品 展覽會까지 열기로 할 것을 대강의 内容으로 하고 있다. 또 그밖에도 兩側은 技術交流를 促進코자 技術者 往來를 許容할 것과 各種「프랜트」의 導入을 8年間 延拂할 것도 合意하는 등 本格的인 貿易을 為한 雙方의 여러가지 具體的 措置가 나타나 있다. 곧 이어 同年 2月에는 在日 朝總聯은 北韓과 日本사이의 通商業務를 擔當할 「株式會社 朝·日 輸出入商社」를 發足시켜 貿易代表部가 設置될 때까지 實質적으로 北韓의 日本內 貿易代表部의 役割을 擔當하게 하였는데, 이 商社는 日本政府가 北韓에 對한 프랜트」延拂輸出에 輸出入銀行 資金使用을 認定 않음 方針이기 때문에 民間資金에 의해 主로 鐵鋼, 自動車, 食料, 纖維등의 大型「프랜트」의 輸出에 길을 열리는 것이 業務의 하나이며 또 北韓은 通商代表부가 設置되기 前에 實質的인 貿易代表부 役割을 이 商社에 委任코자 한 것이다. 北韓에 各種「프랜트」의 輸出을 目的으로 資本金 約 24億圓인 大規模의 「朝·日輸出入商事」는 事實上 東京에 있는 日·中共 覺書貿易事務所와 같은 性格으로서 北韓은 이 商社의 設立을 契機로, ① 日·朝 貿易擴大, ② 經濟與 人的 交流의 促進, ③ 國交正常化에의 支援을 推進해 왔다.<sup>(70)</sup> 또한 同年 4月 18일에는 東京에서 「日·朝貿易協會」

(69) 大韓日報, 1972年 7月 14日.

(70) 日本 每日新聞, 1972年 2月 13日.

의 72 年度 定期 總會가 開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① 貿易 增加를 위한 北韓 貿易關係者の 招請, ② 對北韓 「프랜트」輸出에 있어 輸出入銀行 資金을 使用토록 政府에 要請, ③ 北韓技術者와 日本入國 許可要請, ④ 日・朝 輸出入商社의 設立과 關係 없이 日・北韓間 貿易의 繼續 등을 決定하였다. 한편 이보다 조금 늦은 5月 30일에는當時 在日 朝總聯의 第一副議長 金炳植이가 主動이 되어 新日本製鐵, 東芝등 有力한 企業들이 株主로 參加한 「協亞物產」을 設立(發表는 7月 3일), 日本・北韓 貿易窓口의 구실을 하도록 하였는데 當初 이 「協亞物產」은 日・北韓貿易의 擴大를 노려 73 年度에 輸入 60 億圓, 輸出 105 億圓, 74 年度에는 輸入 75 億圓, 輸出 150 億圓을 達成시킬 計劃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 「協亞物產」을 通過한 日・北韓貿易은 그 후 朝總聯에서 金炳植이 失脚당함으로써 不振한 狀態에 빠지게 되었고, 北韓側에서 「協亞物產」보다는 「朝・日輸出入商社」를 通過 貿易을 계속함으로써 이것은 그동안 事實上 北韓의 「通商代表部」役割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金炳植의 失脚과 함께 這間存廢 問題가 摳頭되었던 「協亞物產」은 1973年 1月 30일 열린 株主總會에서 北韓側의 움직임을 계속 觀望할 必要가 있다는 結論아래 일단 存續시키기로 決定을 보았다.<sup>(71)</sup> 그리고 이 「協亞物產」外에도 「安宅產業」, 「東工物產」등 이른바 北韓友好商社들은 發電機, 合纖原料, 肥料 「프랜트」등에 關해 北韓과 商談을 벌여오기도 했으며, 또 日本 韻媒化學, 「히다찌」「그룹」會社 등은 化學纖維 「프랜트」輸出에 關한 契約을 맺는 등 活潑한 對北韓 商談을 推進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72 年 7 月에 北韓은 모두 1 千億엔(美貨 約 3億2千4百萬달라)에 달하는 財政借款을 「파운드」貨로 提供해 줄 것을 日本의 5 個 銀行에 要請한데<sup>(72)</sup> 이어, 8 月에는 日本의 「미쓰이」銀行을 비롯한 9 個의 外國換銀行은 北韓의 「朝鮮貿易銀行」에 「뱅크・론」을 供與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具體的으로 檢討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뱅크・론」의 總額은 約 2 億「달라」程度로서 이는 日本으로부터의 對北韓 「프랜트」輸出에 使用될 것이라고 한다. 그 얼마 후 10 月에는 北韓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副委員長 金錫鎮을 團長으로 하는 經濟使節団이 戰後 처음으로 日本을 訪問, 日・朝貿易關係者와 日本 財界首腦들과 接觸하여 日・朝貿易擴大問題에 對한 論議를 하였는데, 特히 여기서 輸出・入銀行 融資問題와 2 億「달라」에 이르는 「뱅크・론」問題에 對하여 交涉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sup>(73)</sup> 이 北韓經濟使節團의 日本訪問을 契機로하여 日本 經濟團體聯合會는 韓・日民間經濟合同委員會 性格이 類似한 日・北韓經濟合同委의 創設을 提議할 움직임도 보였었다.

이와같이 72 年에 日本・北韓間에는 活潑한 貿易擴大의 움직임을 보여왔는가 하면 73 年에 접어들어 年初부터 부산한 貿易交涉이 進行되었는 바, 1月 13일에 日・朝貿易協會使節團 一

(71) 日本讀賣新聞, 1973年 1月 31日.

(72) 日本讀賣新聞, 1973年 1月 16日.

(73) 日本朝日新聞, 1972年 11月 17日.

陣 30 名이, 그리고 20 日에 二陣이 30 名, 都合 60 名이 北韓을 訪問, 大大的 인新年度 日·北韓貿易交涉에 나섰는데, 日·朝貿易協會는 이들이 約 1 億弗의 商談을 成功시킬 것을 期待한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또 日本의 神鋼電氣會社는 北韓과 總額 40 億圓線에 이르는 大型 「프랜트」輸出에 關한 商談을 가졌다.<sup>(74)</sup> 그리고 日本 通產省은 北韓·中共·越盟등 共產國家로 부터의 輸入을 抑制하기 위한 事前 許可制를 废止하기로 方針을 세우는<sup>(75)</sup> 한편 北韓과 民間協定을 맺고 市場調查의 駐在員, 事務所를 設置하기 為한 交涉을 벌이기로 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sup>(76)</sup> 일본이 國交가 맺는 北韓에 貿易關係 事務所를 設置하는 것은 中共에 이어 두번째 「[.] 이스」로 注目거리가 아닐 수 없다. 北韓과의 交涉結果, 駐在員 事務所가 設置되면 日本政府는 「日·朝貿易會」와 日本貿易振興會 職員 2名을 常駐시킬 計劃이며 이 중 한명은 通產省 職員을 出張 形式으로 派遣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通產省의 計劃은 新年度 豐算에 「北韓市場調查費」조로 1千6百萬圓이 計上되어 있고, 빠르면 7月에 이것을 實現할 方針으로 있다고 한다. 또한 日本貿易振興會(JETRO)는 1973年 가을 北韓에서 처음으로 日本 貿易博覽會를 開催할 豫定이라고 發表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 貿易振興會는 東歐團과의 貿易도 폐하기 위해 東「베를린」이나 「풀랜드」首都 「바르샤바」에도 새로이 海外貿易事務所를 設置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sup>(77)</sup> 한편 73年 1月 22日 日本을 訪問한 北韓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署理 鄭光淳은 北韓通常代表部가 곧 日本에 開設되어야 한다고 力說한 바 있다. 그리고 1月 13日 日本 大平外相은 記者會見에서 日·北韓 經濟的 交流가 「프랜트」輸出에 따른 輸出入銀行 資金融資問題로 發展할 경우에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對處할 생각입니다 밝히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日·北韓間의 貿易은 앞으로相當히 活潑해질 것이豫想되거나와 지난 71年만 히 드라도 交易面에서 日·北韓輸出入을 合해 7,278萬弗이던 것이 72年에는 71年에 比해 總貿易高가 90%나 急增한 約 1億4千萬弗(推計)에 達하였다고 日·朝貿易協會 統計는 밝혀주고 있으며<sup>(78)</sup>, 이 協會 統計는 이미 72年 첫 11個月동안 日·北韓貿易高가 約 1億2千5百萬弗 水準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協會는 73年的 日·北韓 總貿易高는 72年보다 80%가 增加한 約 2億5千萬弗에 到達할 것이라고 推算했다. 어쨋든 73年分은 輸出入銀行 資金使用問題와 關聯되어 그만큼 擴大될지는 疑問이나相當한 伸張을 보일 것 만은 確實하다. 여기서 72年 1月부터 6月까지의 貿易實績을 살펴보면,<sup>(79)</sup> 日本의 對北韓輸出

(74) 東亞日報, 1973年 1月 12日.

(75) 日本 朝日新聞, 1973年 1月 13日.

(76) 日本 譲賣新聞, 1973年 1月 19日.

(77) 日本 朝日新聞, 1973年 1月 19日.

(78) 한국일보, 1973年 1月 4日.

(79) 國際問題, 1973年 1月, pp.72-73.

國際問題, 1973年 3月, pp.46-50.

은 3,346만9千弗로서 前年 同期와 對比, 264.0%이고 輸出은 1,650만1千弗로서 前年 同期와 對比, 101.7%로서 日本側의 入超에서 大幅의인 出超로 轉換, 對北韓貿易 黑字現象을 볼 수 있다.(61 年度에는 赤字). 輸出品의 順位를 보면 1位는 機械類, 2位는 鐵鋼, 3位는 纖維類, 4位는 化學製品인데 이는 北韓側의 對日貿易에의 本格의인 進出을 反映하고, 對北韓貿易이 經濟建設過程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反面에 輸入品에 있어서는 1位가 纖維原料, 2位가 農·水產物, 3位가 非鐵金屬, 4位가 鐵鋼이었다.

## 2. 人士·文化·「스포츠」·其他 交流關係

먼저 日·北韓間의 人士往來에 있어서는 71年 한 해 동안에 日本入國이 許可된 北韓人員은 31名으로서 그중 26名은 「삼별로」冬季「올림픽」등 「스포츠」關係者였고 朝總聯系의 再入國許可도 27名으로 거의 全部가 親族訪問에 局限되었다.

北韓訪問이 許可된 日本人은 285名이나 되었는데 이를 北韓訪問 人士들은 大部分 商用이자만 言論人 18名, 文藝人 17名, 左翼團體 12名, 日·朝協會 10名, 國會議員 및 그 隨行員 9名등 各界 各層이 모두 包含되었으며, 「스포츠」關係人士는 不過 5名뿐이었다.

特記한 것은 同年 8月 「고또」朝日新聞 編輯局長이 北韓을 訪問, 金日成과 會見을 가졌을 때 金日成은 日本과 國交樹立 前이라도 貿易, 自由往來, 文化交流, 記者交換등이 實現되기를 希望하며, 與·野黨議員들도 友好促進을 위해 北韓을 訪問하는 것을 歡迎한다고 말하였고, 이어 10月에는 「미노네」東京都知事が 北韓을 訪問, 역시 金日成과 會談을 가졌는데, 이때 日本記者 10名도 北韓을 訪問한 바 있다.

72年에 들어와서 北韓人士의 日本入國은 69名으로 增加하였고, 이 가운데 學者 10名, 經濟使節團 7名, 技術者 12名(未入國)으로 特히 經濟使節團과 技術者 入國問題는 日本의 「프랜트」輸出과 關聯된 것으로 매우 注目을 끌게 했다. 朝總聯系의 日本 再入國許可는 142名으로 急激히 增加, 親族訪問 63名, 「스포츠」文化 51名, 學術會議 16名, 赤十字會談 10名, 商社代表 2名등으로 多樣化했다. <sup>(80)</sup>

日本人의 北韓訪問도 頻繁하여, 年初부터 讀賣新聞 記者와 社會黨 國際局長「가와자끼」와 日·朝友好促進 議員聯盟 代表團 11名을 비롯,各界 34團體에서 北韓을 訪問, 兩側間의 往來가 活發히 展開되었다. 特히 日本은 72年 南·北韓間의 「7·4南北共同聲明」發表를 契機로 하여 北韓으로 부터의 入國을 緩和할 方針을 세운 以來, 技術者 入國問題도 肯定의인 面에서 檢討하는 『文化·學術·「스포츠」·經濟面의 人的 交流』를 擴大하여 왔다.

그동안 日本은 北韓으로 부터의 入國에 대해서는 人道의인 경우에 限하여 「케이스·바이·케이스」로 認定한다는 消極的인 態度를 取해 왔으나 南·北韓의 對話가 進展됨에 따라 對北韓 人的 交流를 漸次 緩和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80) 朝鮮日報, 1973年 1月 19日.

우선 日本政府는同年 4月에 金日成回甲祝賀名目으로 朝總聯系幹部 6名과 一般省墓名目으로 12名<sup>1)</sup> 朝總聯系 僑胞의 再入國을 許可한 以來 日本法務省은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 即後<sup>2)</sup> 7月 13일에 朝總聯系인 東京 朝鮮中·高蹴球團(韓明水 團長 以下 26名)과 橫濱(요코하마) 朝鮮初級學校 音樂舞踊團(朴用德 團長 以下 25名)의 北韓에의 出國과 日本에의 再入國<sup>3)</sup> 許可하였는데 前 佐藤內閣은 앞서 6月에 이들의 再入國申請을 拒否한 바 있다.

在日 朝總聯系 北韓訪問 後 再入國은 아직까지 省墓를 「人道的」인 경우에 局限시켜 놓았는데 이와같이 「스포츠」, 文化交流에 까지 再入國이 許可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當時 이 措處에 대해 日本法務省은 「7·4南北共同聲明」에 의해 韓半島를 둘러싼 緊張이 緩和돼 가고 있기 때문이라<sup>4)</sup>. 說明하였다.

역시 7月에 日本 社會黨議員 10名이 一週日間 北韓을 訪問하였고, 이 보다 앞서 6月에 日本 公明黨代表團이 北韓을 訪問, 竹八 公明黨 團長과 康良煜 北韓 對外文化連絡協會 委員長사이에 署名된 共同聲明에서 公明黨은 日·朝關係正常化에 關한 이른바 「五原則」을闡明, 日·朝 國交<sup>5)</sup>期樹立問題와 核武器 全面禁止에 關한 雙方 合意, 그리고 韓半島 問題등에 關한 5個項目의 基本的 立場을 밝혔는데,<sup>(81)</sup> 그의 主張은 ①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은 民族自決에 의해 이루어야 한다. ② UN의 北韓에 대한 敵對決議를 反對하며, 北韓代表는 無條件 UN에 招請되어야 한다. ③ 韓國으로부터 美軍은 撤收해야 한다. ④ 韓·日條約에 反對하며, 日朝友好關係를 早速히 樹立해야 한다. ⑤ 在日 朝鮮人에 대한 差別待遇에 反對하며 祖國에의 自由往來<sup>6)</sup>를 許可해야 하며, 人士·文化·經濟交流 뿐만 아니라, 通商代表部를 設置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公明黨의 北韓訪問團은 金日成과도 會談, 南·北韓의 平和統一問題와 UN에서의 韓半島問題, 美·蘇頂上會談 後의 國際情勢, 日·朝關係의 正常化問題등에 關해 論議하기도 하였다.<sup>(82)</sup>

그리고 7月에 渡邊浩太 新潟(나이가다)市長이 北韓을 訪問, 田中政府의 對北韓 政策轉換을 促求하였고,<sup>7)</sup> 이어 8月에 25名의 日本「스포츠」關係者들에 의해 日·北韓 民間「스포츠」交流 增進協會가 東京에서 創設된 며칠 後 日本의 「노벨」賞受賞者인 湯川秀樹博士와 朝永振一郎博士 등 著名한 學者 20名은 聲明書를 發表, 北韓과의 科學·文化交流는 勿論 早速한 日·北韓 外交關係 樹立을 促求하였다.

그리고 8月末, 日本法務省은 日本에서 開催되는 「日本機械學會 第2回 國際「심포지움」에 參加를 申請<sup>8)</sup>한 6名의 北韓 科學者들에게 入國을 許可했는데 北韓 科學者들이 日本에서 열리

(81) 日本 貢賈新聞, 1972年 6月 6日.

日本 朝日新聞, 1972年 6月 7日.

(82) 日本 每日新聞, 1972年 6月 2日.

(83) 北韓中央通信報道, 1972年 7月 17日.

는 國際會議에 參席하기는 이것이 처음이다.<sup>(84)</sup>

9月에 들어와서 日本 社會黨은 5日 北韓과의 關係正常化 實現의 一環으로 「日・朝文化交流協會」를 創設하였는데, 同協會는 日・北韓의 文化交流 擴大, 友好關係의 強化를 目的으로 하였으며 飛島田(아스까다) 全國革新市長會 會長 大河內一男(오교우찌) 前 東京大 總長등 各界代表 30餘名이 參加하고 있는 同 協會의 當面 事業計劃은 北韓과 文化交流協定을 締結하고 「만수대」舞踊團의 日本公演을 實現시키는 일로 돼 있다. 또한, 6日에는 日・北韓學術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日・朝社會科學連帶委員會」가 東京에서 創立되었는데 이 委員會는 北韓科學者의 研究書 翻譯, 科學者 交流, 「심포지움」開催등을 活動目標로 하고 있다.<sup>(85)</sup> 17日에는 日本 朝日新聞 特派員團(團長 高橋武彥 論說主幹等 3名)은 金日成을 訪問, 會見을 가졌고 이자리에 1金日成은 日本의 南・北韓에 대해 均衡政策을 實施할 것을 促求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부신한 움직임 속에 25일에는 日本과 北韓間의 첫 「文化交流協定」이 平壤에서 日・朝文化交流協定 代表인 岩井 章(이와이 아끼라)와 北韓 對外文化連結委員會 副委員長인 김광협 사이에 締結되었다. 이 日・北韓文化交流協定은 8個項目의 具體의인 文化交流計劃을 列舉하고 있는데 그 骨子는 ① 日・北韓은 文化・藝術・教育・保健・體育・出版・放送分野에서 幅 넓은 交流를 위해 努力한다. ② 平壤과 東京에 新聞, 放送記者들 및 「뉴스・서비스」要員들을 常駐시키도록 努力한다. ③ 藝術家・映畫製作家・演藝人들의 交流를 促進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한편 같은 25일에 日本法務省은 처음으로 7名의 北韓 經濟代表와 考古學者 4名의 日本 國을 許可하였는데, 北韓 國際貿易促進委 第1副委員長 金錫鎮을 團長으로 하는 經濟代表團은 北韓國際貿易促進委 關係者 4名과 鑛物・食糧 輸出入業者로 그리고 北韓 考古學研究所 副所長 朱榮憲을 團長으로 한 4名의 考古學者團은 모두 教授로 構成되었는데 이 考古學者團은 「다까마쓰」古墳 學術調查에 韓國學者들과 함께 參加하였다.

이보다 4일 앞선 15일에, 日本 法務省은 朝總聯 45名에 대해 北韓 一時 訪問을 認定, 이들의 再入國을 許可하였는데 日本政府가 65年 11月 以來 72年 3月까지 省墓「케이스」로 前後 6次 모두 60名에 대해 再入國을 許可한 것에 비하면 이러한 45名이라는 數字는 日本政府가 北韓 訪問의 制限을 차차 緩和하고 있다는 徵兆로 보인다. 그리고 10月에 와서 日本을 訪問한 北韓科學者들과 一團의 日本 衆議院議員들은 12日 東京과 平壤間의 科學交流을 增進할 것에 合意하였는데, 이 合意는 北韓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長 金錫亭이 인솔하는 北韓科學者들과 日本 衆議院內의 日・北韓友好促進 議員聯盟 幹部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73年에 접어들어 日本 商社代表團 60名이 一陣과 二陣으로, 각각 39名씩 나누어 1月 中旬에 北韓을 訪問하는 것을 비롯하여, 日本 法務省은 印度에서 열리는 亞細亞教職員團體 討論會에 參席하는 朝鮮大學校 李時求 副學長등 朝總聯系 教職員 3名에 대해 再入國을 許可했

(84) 日本 每日新聞, 1972年 8月 31日.

(85) 日本 朝日新聞, 1972年 9月 4日.

는데 朝總 諸이 國際會議에 參加하기 위해 北韓 以外의 第3國에 出國 許可를 받은 것은 이 것이 두번 째 「케이스」이다. 1月末에는 北韓 對外交化 連絡委 副委員長 鄭光淳은 平壤 高等 輕工業學校 球蹴團을 이끌고 日本을 訪問, 外交關係의 正式 樹立에 앞서 日本과 經濟·文化·科學 및 「스포츠」分野에서의 交流를 增進할 것을 提議하였다. <sup>(86)</sup>

이러한 提議는 鄭光淳이 日本 二階堂官房長官을 訪問하여 提議한 것인데 北韓의 高位官吏가 日本政府의 閣僚와 會談을 가진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로서 注目되는 것이다. 그리고 報道에 의하면 北韓의 新聞記者 10名이 오는 4月初 日本을 訪問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北韓 新聞社의 主筆級을 中心으로 構成된 이들은 日本 新聞協會가 招請한 것이다. <sup>(87)</sup> 이미 日本訪問中 鄭光淳이 北韓 言論人과 出版 發行人들이 今年 上半期中에 日本을 訪問할 것이라고 밝힌 曰 있었고, 또 가을에 北韓 演藝團이 日本 巡迴公演을 가질 것이라고 詳한 바 있었다. 그리고 2月 5일에는 日本 東京新聞 掘田(호리다) 編輯局長이 金日成을 訪問, 會見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73年에는 過去 어느 때보다 日·北韓間에 各 分野에 걸친 交流가 急速히 進展되리라 想想된다. 그 예로, 日本은 北韓에 民間「례별」의 貿易事務所 設置를 檢討 중이라고 日本 通產省에서 밝혀지고, 日本貿易振興公社는 海外 27個國에 商品見本市場을 設置할 豫定이며, 北韓見本市 開催가 包含될 豫定으로 이에 對한 援助費도 豫算案에 包含되어 있다는 것이다. <sup>(88)</sup> 또한 朝總聯系의 北韓 친척訪問도 隨時로 許可할 方針이며, 北韓 放送關係者들의 日本入國도 許可하였다 <sup>(89)</sup>는 것은 이것을 證明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北韓과 美國關係 (北韓의 對美外交)

##### 1. 北韓·中共對美接近

71年 「박순」大統領의 中共訪問이 發表되었을 때 「白旗를 들고 降伏하라 간다」<sup>(90)</sup>고 非難을 퍼부었던 北韓은 그후 72年 2月 美·中共頂上會談 結果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 徐徐히 對美接近의 秋波를 던져왔다. 71年 12月 金日成은 非共產記者에게 처음으로 許容한 日本 朝日新聞 編輯局長과의 會見에서 美·中共頂上會談이 北韓의 行動에 어떤 修正을 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우리는 우리의 外交政策을 再檢討 중이다. 우리는 緊張緩和가 하나의 大勢를 이루고 있는 이때 이潮流에 거슬리는 政策을 追求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72年 1月 日本 讀賣新聞과 社會黨 國際局長 「가와자끼」와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20年間 先決條件으로 固執해온 駐韓美軍 撤收 要求를 後退시키고 南·北韓間의 相互不可侵, 平和協定의 優先 締結을 主張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무렵 在日 朝

(86) 日2: 朝日新聞, 1973年 1月 29日.

(87) 日2: 朝日新聞, 1973年 2月 6日.

(88) 東引日報, 1973年 3月 4日.

(89) 한일일보, 1973年 3月 3日.

(90) 朝鮮신문, 1971年 8月 6日.

總聯 前 參議長 金炳植이 「워싱턴·포스트」紙 東京支局長 「셀릭·해리슨」記者와의 會見에서 「美國이 우리를 正式名稱으로 불러준다면, 우리의 關係改善을 위한 좋은 出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를 비롯, 美軍이 꼭 撤收해야만 美國과 北韓의 關係가 트이고 對決狀態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言明, 北韓의 美國에 對한 態度變化를 示唆하였다. 그以後 北韓은 實際로 전 보다 柔軟한 見解를 나타내 왔으며 這間의 여러차례 記者會見에서의 發表와 西方國家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런 見解를 實證해 주었다.<sup>(91)</sup> 그리하여 美國에 對해 서도 北韓은 전 보다 부드러운 態度를 보여 왔고 특히 駐韓美軍의 철수가 對美關係改善의 前提條件이 아님을 밝히는 데까지 後退하였다. 이러한 것은 事實上 美國國民들과의 「人民外交」를 強調하는 公開 示唆들이라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로저스」美國務長官도 72年 3月 7日 記者會見에서 北韓이 對美接近을 바라고 있다는 某種의 信號가 있다고 밝힌 것은 모두 이런 事實을 뒷받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北韓을 72年 5月 韓國動亂 以後 처음으로 美國 「뉴욕·타임즈」의 「해리슨·솔즈베리」·「존·리」 두 記者와, 또 뒤 이어 「워싱턴·포스트」의 「셀릭·해리슨」記者등 세 記者를 訪問도록 招請함으로써 對美接近을 試圖하는 實質的인 움직임을 나타낸 후,同年 7月에는 또 처음으로 美「하바드」大學의 「제롬·코헨」教授와 그의 家族을 招請함으로써 더욱 對美接近을 具體化 하면서 金日成의 所謂 對美人民外交 攻勢를 展開하기 始作하였다. 또한 72年 7月 報道된 바에 의하면 北韓은 「알루미늄」工場과 造船所建設을 위한 美國의 지원을 摸索하기 위해서 일단의 美國 實業人們과 接觸하였다고 傳해졌는데, 北韓은 美國의 그러한 支援의 代價로 雲母, 「텅구스텐」, 石炭 및 金을 提供할 것을 提議했다고 알리쳤다. 그런데 美當局은 이러한 報道에 對해 아는바 없다고 論評했으나 그 可能性을 全的으로 排除하지는 않았다.<sup>(92)</sup> 그 以後의 北韓의 對外姿勢는 여러面에서 對美接近의 試圖를 나타내 주는 徵候가 濃厚하였다.

## 2. 美國의 對北韓姿勢

72年 3月 7日 美國 「로저스」國務長官은 「北韓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관계를改善하려는 것」<sup>(93)</sup>이 現 美國政府의 方針이라고 밝혀 美國 역시 對北韓 關係改善에 어떤 示唆를 던져 준데 이어, 同 15일에는 美合參議長 「토마스·무어」提督은 下院外交委員會에서의 證言을 통해 「앞으로 2~3年間 中共및 北韓과의 關係를 현저히 好轉시키는 것이 우리의 確固한 希望이다」라고 말하여<sup>(94)</sup> 美國의 對北韓關係改善를 促求하였다. 역시 同 3月에 美國은 비록 對北韓 旅行制限을 1年 延長하는 措處를 取하긴 하였으나 記者들의 旅行可能性을排除한 것은 아니었고, 大部分의 美國外交官들은 美國人의 北韓 旅行制限을 撤回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

(91) 東亞日報, 1972年 6月 14日.

(92) *U.S. News and World Report*, 1972年 7月 24日.

(93) 日本 朝日新聞, 1972年 3月 17日.

(94) 上同.

는 點으로 ] 뿐이 블 때 이러한 制限撤回 指處는 다만 時間問題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이 北韓旅行에 대한 制限등을 撤回한다면 이것은 美國의 外交의인 承認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信號로 解釋할 수 있다고 美國務省은 보고 있는것 같다. 또 同年 4月 美國務省은 美國記者들이 北韓을 訪問한 後에 萬若 北韓記者들이 美國入國 查證을 申請해 온다면 美國은 「互惠的 原則」에 따라 入國을 許可할 것이라는 示唆를 준비 있다. 同 5月에는 韓國戰爭 당시의 從軍 [後 20年만에 처음으로 美國「뉴욕·타임즈」의 「해리슨·솔즈베리」, 「존·리」記者와 뒤이어 「워싱턴·포스트」의 「셀릭·해리슨」記者가 北韓을 訪問한데 이어 同 7月에는 「제롬·코헨」教授가 學者로선 처음으로 北韓을 訪問하여 美·北韓接近의 具體的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同年 6月 27일에 「로저스」 國務長官은 「칸베라」에서 열린 第 17 次 SEATO(東南亞條約機構) 理事會 會議 演說에서 비로소 北韓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DPR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란 公式名稱으로 呼稱, <sup>(95)</sup> 美國의 對北韓接近의 兆候를 더욱 짙게 하여 注目을 끌었다. 이는 前記한 바, 前 朝總聯 副議長 金炳植이 「워싱턴·포스트」紙와의 會見에서 「닉슨」大統領이 中共과의 關係改善의 첫 兆候로서 70年 「워싱턴」을 訪問中인 「루마니아」의 「초우세수쿠」와 祝杯를 交換하는 자리를 빌어 中共을 「中華人民共和國」(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고 부른 것을 想起 「美國이 우리를 正式名稱으로 불러준다면 우리의 關係改善을 위한 좋은 出發이 될 것이라」<sup>(96)</sup>고 말한 것과 어느 意味에서 相互 聯關性을 지니는 것이라고 풀이 될 수 있다. 이 公式名稱에 對해 美國務省當局은 앞으로도 정식명칭인 DPRK 와 North Korea라는 명칭을 계속 併用할 方針이라고 밝힌 다음, 그러나 이 問題가 美國이 對北韓政策을 轉換한 것은 아니라는 解明을 불이기도 하였지만<sup>(97)</sup>, 美國 官吏로서는 처음으로 公式名稱을 使用했다는데 美國의 對北韓姿勢에 있어서 새로운 底意와 暗示가 内包돼 있다고 解釋되는 것이다. 이처럼 美國은 對北韓 關係改善에 조심스런 反應을 보이고 있거니와 北韓의 對美接近을 받아들이는 態度 역시 「어쨌든 過去 北韓이 보여준 和解할 수 없는 敵意나 北韓의 孤立 보다는 났다. 보다合理的인 關係를 맺고자 하는 그들의 態度는 歡迎할 만한 進展이다」<sup>(98)</sup>라고 「워싱턴·스타」紙가 指摘하듯 肯定의이다. 結局, 這是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外交의 原則으로 삼고 있는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南·北韓關係가 對話時代라는 새로운 時代에 進入한 韓半島情勢를勘案, 南·北韓의 關係改善을 希求하면서 이에 側面 支援을 考慮하는 意味에서도 美國의 對北韓接近 및 關係改善은 必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美國과 北韓間에는 徐徐히 나마 關係改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預見된다.

(95) 日本 朝日新聞, 1972年 7月 1日.

東亞日報, 1972年 7月 1日.

(96) 東亞日報, 1972年 6月 14日.

(97) 東亞日報, 1972年 7月 1日, 7月 3日.

(98) 日本 每日新聞, 1972年 7月 15日, 同 9月 15日.

## 四. 北韓의 對 UN 및 平和攻勢

### 1. 北韓의 對 UN 外交

#### 1. 「알제리아」案 提起와 對 UN外交

71年 第 26 次 UN 總會에 駐韓 UN 軍 撤收 및 UNCURK 解體를 主張하고 나온 「몽고리아」案의 共同發議國의 하나였던 「알제리아」를 비롯 「말리」・「유고」・「브라자빌・콩고」・「잠비아」・「아멘」共和國・「탄자니아」・「모리타니아」・「기니아」・「시에라레온」・南「예멘」・「수단」・「소말리아」 등 所謂 非同盟 13 個國은 72年 7月 18日 「韓半島의 自主 平和統一의 促進을 위한 有利한 條件 造成」이라는 新的 名稱이 붙은 共同提案을 第 27 次 UN 總會 議題로 提出, 韓國 問題의 討議를 正式으로 要請하였으며, 그후 中共, 蘇聯, 東歐諸國도 이에 加擔하였다. 本案이 要請書에 11 個項으로 된 說明書의 主要 內容을 보면, 共同要請國은 議題가 採擇된 경우의 決議案의 內容으로서, ① UNCURK 的 活動中止, ② 駐韓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 및 國際聯合旗의 使用中止, ③ 南・北韓의 交涉促進, ④ 外國軍(駐韓美軍)의 撤退, 但 그 時期는 南・北韓關係正常 후라도 無妨, ⑤ 韓國에 對한 外國의 武力干渉 禁止등이며, 아울러 韓國 問題討議時에 南・北韓代表 招請도 主張하였다.

71年가지만 하여도 北韓의 主張을 代辯한 것은 「몽고리아」・「알바니아」등 共產國家들로서 中立國의 全般的인 支持를 받지 못하였으나, 72年 總會에서는 事實上의 北韓案을 從來와는 달리 非同盟 中立國이 發議하였다는데 그 特徵이 있는바, 여기에相當히 注目되는 것이다. 이 「알제리아」案은 「UN의 責任은 韓國 問題와 直接的으로 關聯되어 있다」고 明示하고 「UN總會는 누차 되풀이 해서 韓國統一을 위해 努力하며 이 地域의 全面的인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고 是認함으로써 처음으로 韓國에서의 UN의 存在와 役割을 일단 承認하는 데서 出發했다. 그리고 說明覺書는 「이제 南・北韓은 最近의 共同聲明을 통해 그들이 平和로운 方法으로 外勢의 干渉 없이 統韓을 이루하기 위한 共同努力을 벌이기로宣言함으로써 韓半島에서 보다 重要한 事態發展이 이루어졌음」에 注目하고 「可能한限, 이를 激勵, 促進시키는 것이 UN의 義務」라고 하여 南・北共同聲明을 오히려 逆利用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알제리아」案은 이러한 狀況變化와 UN에 對한 認識의 變化를 土臺로 하여 從來의 共產側과는 달리 UNCURK의 解體를 直接 主張하지 않고 있으며, 駐韓 UN 軍의撤收案에도 1 가지 條件을 提示, 즉 UN 軍은 모두撤收하되, 美軍이 韓・美兩國政府의 合意下에 계속 殘留하는 것은 問題삼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過去 UN에 提議한 內容의 骨子인 駐韓外國軍을 無條件撤收시켜야 하며 또한 UNCURK를 解體시켜야 한다는 데서 戰術的으로 交묘히 發展시킨 것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內容의 提案 意圖는 UN旗 排除下의 美軍駐屯을 事實上 認定함으로써 美軍의 繼續的인 韓國駐屯의 名分을 段階的으로 衰失시키

려는 戰術的 企圖인 것이며, 또한 UNCURK 活動中止의 主張은 過去의 UNCURK 解體主張에서 發展된 것으로서, 이는 7·4 共同聲明에서 民族內部問題의 明示와, 現在 UNCURK 의 機能의 弱化를 利用하려는 判斷에서 導出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實上 처음에 UNCURK 構成國은 濟州, 利蘭, 比律賓, 泰國, 土耳其, 「칠리」, 그리고 「파키스탄」등 7 個國이 있으나 70 年代에 와서 「칠리」와 「파키스탄」이 脫退함으로써 現在는 나머지 5 個國으로만 構成되어 있고, 또 UNC JRK 的 活動은 年 一回 總會에 報告書 提出 程度이고 別로 活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인 만큼, ی러한 組織과 機能 兩面에서의 弱化를 共產側은 利用하려 한 것임은 分明한 것이다. 그리고 駐韓 UN 軍問題에 있어서도 역시, 實事上 參戰 16 個國은 當初 韓國問題에 대해서 어느 國家 보다도 關心이 많고 韓國問題에 대한 UN 的 權威와 權能을 認定한 나라들이었지만, 政治的 與件의 根本的인 變化로 말미암아 美國을 除外한 나머지 15 個國은 數名의 連絡將校만 남겨 놓고 있는 形便이므로 UN 旗만 내려 버리게 되면 美軍만이 殘留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 「알제리아」案의 核心이 있다고 볼 수 있다. 特히 前述한 바와 같이 이 案은 7·4 共同聲明에 關하여 言及하고 있는데, 南·北韓은 이 聲明에서 「外勢干涉 없이 自主的으로 統一」한다고 宣言했지만 「外勢」의 解釋에 對해서는 서로 엇갈려 있는 바 韓國이 UN 은 「外勢」가 아니라고 하는 反面, 北韓은 「外勢」라고 固執하여 UN 的 介入을 反對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國際平和機構인 UN 을 「外勢」라고 하는데는 理論的 根據가 희박하므로 北韓은 우선 UN 軍과 美軍을 分離함으로써 美軍을 「外勢」라고 規定하고 韓半島에서 撤收시키도록 하는 大義名分을 찾고자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對 UN 接近姿勢

前記 「알제리아」案의 說明覺書는 提案趣旨로서 「南·北韓 政府가 平和的 手段에 의한 外國의 干涉 없이 韓國 再統一에 努力하려고 合意한 以上, 第 27 次 UN 總會는 韓國의 獨立을 만드는 手段을 研究할 必要가 있으며 特히 UNCURK 的 活動 및 UN 軍의 存在를 再檢討할 것이 必要하게 되었다」고 指摘하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의 對 UN 柔軟性을 나타내고 UN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이니시아티브」를 取하려는 態度를 暗示하여 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北韓의 對 UN 接近 戰術을 보면 北韓은 從來의 否定的이고 排他的인 一方的 主張의 反復形式을 脫皮<sup>1</sup>과 아울러 只今은 肯定的인 側面에서 活用,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事實이다. 또한 北韓은 實現 可能한 段階의 方途로서 UN 會員國들의 呼應을 얻으려 하고 있음이 特徵이라 하겠다. 지난 第 27 次 總會에서는 實事上의 北韓案인 「알제리아」案을 非同盟 中立國이 發議함으로써 票 摂得에 깊이 配慮한 흔적이 보인 것도 그 例이다. ی러한 北韓의 UN에 대한 柔軟한 接近現象은 對 UN 活動에 있어서 中共과 蘇聯을 비롯한 共產國家 및 非同盟 中立國家들의 支持를 받고 있었지만, 72 年 第 27 次 總會에서는 韓國問題討議 一年 延期案이

可決됨으로써 「알제리아」案은 採擇에 失敗하였다. 英國, 美國, 日本등 西方 自由國家가 提案한 「韓國問題討議 1年 延期案」 즉 「韓國問題 不上程案」이 UN 運營委員會에서 賛 16, 反 7, 棄權 15., 그리고 總會에서 賛 70, 反 35, 棄權 21로 可決되었는데, 이번 總會의 特徵은 「알제리아」案을 推進했던 共產側의 主張이나 韓國을 비롯한 自由陣營의 延期論이나 다 같이 韓半島에서 南·北對話를 進行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그 名分을 찾았던 點이다. 結局 「7·4 共同聲明」과 赤十字會談의 經過가 表決의 成敗를 左右한 核心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只今 까지 東·西兩陣營이 벌인 激論의 主題였던 韓半島에서의 「唯一合法性」의 範圍로부터 「統一」이라는 旨題로 바뀐 것을 意味한 것이다. 勿論 南·北對話에 대해서 兩陣營이 歡迎의 뜻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 UN의 態度 決定에는 兩陣營이 전혀 다른 主張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2年の 討議延期 決定은 韓半島안에서의 事態發展에 크게 寄與했으며…새로운 論譈를 벌여도 現在의 進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韓半島問題는 韓半島國民에게 물려두자」는 自由陣營의 現實主義的 觀點에 대해, 「UN은 南·北對話에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UNCURK, UN軍등을 除去해 주어야 한다」는 共產側의 政治的인 主張이 激烈히 맞섰다.<sup>(99)</sup> 結局, 自由陣營側의 主張이 貫徹, 71年の 26次 總會 때와 마찬가지로 72年 第27次 總會 때도 韓國問題 不上程案이 採擇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側으로서는 南·北對話에 보다 達力해야 할 負擔을 지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關聯, 中共 副外相 喬冠華는 71年の 26次 總會 때와 마찬가지로 72年 의 27次 總會 때에도 계속 駐韓 UN軍 撤收와 UNCURK 解體 問題를 들고나와 北韓의 主張을 代辯했는데, 喬冠華는 同 10月 3日 UN 總會에서의 演說에서, 中共軍이 이미 지난 1958年에 北韓으로부터 撤收한 事實을 指摘하면서 UN 軍司令部와 UNCURK의 存續은 「時代錯誤」라고 신랄히 非難하였고, 또 그는 UN에서 韓國問題 討議를 來年으로 延期한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말했으나 中共政府와 人民들은 「7·4 南北共同聲明」을 열렬히 歡迎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UN에서 中共勢에 便乘, 앞으로 北韓은 UN內의 普遍性(Universalism), 分斷國 同時加入論, 특히 73年 總會에서의 東·西獨 同時加入 展望을 奇貨로 對 UN政策을 積極化함과同時に 南·北韓 同時 招請의 實現을 위해 더욱 努力할 것이다.

## (2) 北韓의 平和統一 攻勢

먼저 北韓은 71年 4月 12일 「最高人民會議 4期 5次 會議」에서 「祖國平和統一 8個項 計劃」이라는 統一方案을 外相 許淡을 통하여 提起하였는데,<sup>(100)</sup> 그 内容은, ① 駐韓美軍의 完全撤收, ② 南·北韓兵力의 相互 10萬名線으로 減縮, ③ 統一中央政府樹立을 위한 南·北韓自由選舉 實施, ④ 中央政府樹立의 過度措置로서 南·北聯邦制 實施, ⑤ 南韓에서의 政治活動의

(99) 東方日報 1972年 9月 21日.

(100) 中央日報, 1971年 4月 15日.

自由와 政治犯 釋放, ⑥ 韓·美, 韓·日條約 등 對外條約 廢棄, ⑦ 通商, 科學文化, 體育 등 諸分野의 交流 및 書信交流와 人士往來, ⑧ 以上의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各政黨, 社會團體들과 全體人民的 性各을 가진 사람들로서 南·北政治協商을 갖자는 것 등인데, 이 政治協商會議는 双方이 合意하는 任意의 場所에서 어느때나 召集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8個項의 統一方案은 그 內容으로 보아서 이미 50年代 以來 反復 主張해 온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이며, 다만 從前에 主張해 온 提案들을 時期에 맞게 綜合해서 내 놓은 것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61年 5月 勞動黨 4次 大會 以後 統一提案을 처음으로 綜合 整理한 것으로 70年代 統一戰略 및 戰術이 反映되고 있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同 8月 6日 金日成은 「시하누크」歡迎演說 가운데, 統一問題 協議를 위해 韓國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諸政黨, 社會團體 및 個人과도 接觸할 用意가 있음을 提議했는데, 特히 여기서 執權黨인 民主共和黨을 指摘한 것은 從來의 北韓의 態度에 있어 하나의 重要한 變化를 示唆해 주는 것이다. 그 1週日 後인 12日, 大韓赤十字社는 離散家族을 찾기 위한 赤十字會談을 提議했고 北韓側은 即刻 이를 受諾하기도 하였다. 한편 同 10日, 「뉴욕·타임스」의 「제임스·레스턴」記者와의 會見에서 中共首長 周恩來는 「韓國戰의 休戰協定 締結을 平和協定으로 轉換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韓半島問題의 解決은 「南·北間의 和解를 가져오고 또 平和的 統一의 方法을 摸索해야 한다」고 말하여 平和的 統一을 促求하기도 하였다.

72年에 들어서면서 北韓은 平和的 統一을 標榜하는 보다 積極的인 姿勢를 보았는데, 金日成은 新年辭에서 國際的 環境變化, 즉 中共의 UN加入, 美·中共의 和解, 日·中共間의 接近摸索이 北韓의 立場을 有利하게 하는 것이라고 展望하면서 그들이 平和統一案을 提示하고 있다는 것과 並으로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 모든 努力を 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sup>(101)</sup>. 여기서 그는 南·北韓全域에 걸쳐서 平和的 統一氣運이 高潮되고 있으며 板門店에서解放後 26年만에 처음으로 赤十字 代表들이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 對話를 나누고 있는 事實을 指摘, 南·北의 障壁을 허물고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는데 重要한 契機가 되기를 希望한다고 했다. 또 그는 그들이 「4大 軍事路線을 强行한 것은 어떤 不意의 侵略에 對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自己를 「프로레타리아」政權은 오직 帝國主義, 反動主義, 反革命分子들이 革命을 反對하여 暴力を 使用할 때 이에 對抗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뒤이어 同月 6일에는 北韓의 平和統一 戰線體인 祖國平和統一委員會 中央委員長 李克魯는 談話에서, 「이제 北韓이 提示한 一連의 統一方針에 對해 韓國國民의 支持와 呼應을 불러 일으켰으며 國際的 인 支持와 共鳴을 받았음에도 韓國政府가 無條件拒否하였고 오히려 平和統一을 反對하며 戰爭準備 단을 나지고 있다」고 強調하였다.<sup>(102)</sup>

(101) 朝鮮日報, 1972年 1月 1日.

(102) 極東問題研究所, 北韓의 統一論評 解剖, p.56.

더욱이 北韓의 平和的 統一攻勢는 同月 10日, 金日成과 日本 讀賣新聞 高木健夫記者와의 會見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즉 여기서 金日成은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對하여, ① 南·北韓의 平和協定 締結, ② 南·北韓相互 不可侵宣言 또는 武力不行使 協定締結, ③ 南韓으로 부터의 美軍撤收, ④ 南·北韓·相互減軍, ⑤ 民主共和黨등 諸政黨과 政治會談 開催, ⑥ 南·北韓의 自由往來등을 提議, <sup>(103)</sup> 從來의 主張을 反復하였다. 또 金日成은 「民族의 内部問題인 우리 祖國의 統一問題가 外勢의 干渉에 依해서가 아니라, 朝鮮 사람들自身의 손에 의하여 그리고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되어야 한다」고 一貫하게 主張하였는데, 이는 南韓의 共產化 達成에 主된 妨害物이 되고 있는 UN軍을撤收시키고 韓國問題를 UN 밖으로 끌어내려는 底意를 품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金日성이 그동안 줄 곧 先決條件으로 固執해 온 駐韓美軍撤收問題를多少 後退시켜 美軍이 殘留해 있다라도 平和統一을 向해 韓國과 不戰條約과 平和協定을 論議하자고 한 提議는 注目을 끌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앞에서 본 바 같이 駐韓美軍의撤收以前에 韓國과 協議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는 것은 北韓의 對美關係에 있어 前보다 柔軟한 態度를 보이고 있는 證左라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5月 27일 「뉴욕·타임즈」의 「해리슨·솔즈베리」 및 「존·리」 두 記者와의 會見에서도 이제는 武力에 의한 再統一을 支持하지 않는다고 言及하면서 그 代身 金日成은 韓半島人民이 相互間의 決定을 통하여 그리고 相異한 制度와 思想의 共存을 許容하는 條件밑에서 平和的으로 統一되기를 希望한다고 主張, 「한 國家內에서도 相異한 體制와 理念이 다른 國民들이 存在할 수 있다. 南·北韓이 어떤 政治體制를 가질 것인가는 南韓國民들自身이 決定할 問題이다」<sup>(104)</sup>고 力說하였다. 朴成哲은 北韓에 滯留中인 日本記者團과의 會見에서 南·北統一問題에 對해 言及, 「韓半島의 統一은 7·4 南·北聲明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外部의 干渉을 排除하고 和的으로 思想, 制度의 差異를 넘어서 努力한다는 3大原則에 따라 推進하면 모든 것이 解決된다. 共同聲明 以前에 比해 只今은 南·北韓의 門戶가 열려 相互往來하면서 協議하여 앞으로 問題가 생기더라도 對話로써 解決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sup>(105)</sup> 이어 同 17일에는 每日新聞 特派員團과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平和的 南·北統一을 하루빨리 實現시키기 위해 南·北聯邦制實施가 必要하다. 南·北聯邦制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南·北韓의 代表로 最高民族會議를 組織, 南·北韓에서 提起되는 政治·經濟·軍事·文化等 問題를 解決한다. 南·北聯邦制가 實施되면 보다 廣範한 接觸과 往來가 實施되고 經濟, 文化交流도 한층 圓滑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다시 附言하여 「聯邦制를 實施하면 南·北의 運動選手, 文化人, 藝術人이 相互訪問, 國際藝術祭등에 南·北單一「팀」을 構成할 수 있다. 그리고 記者들의 自由往來, 서류, 平壤에 記者代表部 設置, 新聞社支局 開設, 新聞·雜誌의 交換도 可能하게 될

(103) 上同.

(104) *The New York Times*, May 31, 1972.

(105) 日本 朝日新聞, 每日新聞, 讀賣新聞, 1972年 9月 8日.

것이다」<sup>(106)</sup>라고 보다 具體的으로 聯邦制 實施에 對한 構想을 披瀝하였다. 그리고 最近의 報道에 의하니, 北韓은 53年 以來의 休戰狀態를 公式的으로 終結하기 위한 平和條約 締結을 韓國에 또다시 提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北韓의 聯邦制 實施, 平和條約 締結, 相互兵力減縮등과 같은 提議는 結局 亞細亞의 繁張緩和를 希望하는 美國에 「어필」, 亞細亞에서 軍事介入을 細小시키는 「닉슨·독트린」에도 合致된다고 判斷, 北韓이 特히 最近에 平和攻勢의 一環으로 『육 提唱하고 있는데, 結局 이같은 北韓 提議의 底意는 駐韓美軍의 撤收와 韓國의 軍備縮小를 促進하고, 同時に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弱化, 北韓의 國際的 支持를 擴大코자 하는데 있음을勿論이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은 繁張緩和·平和指向의 國際情勢에迎合하면서 계속 對消 平和路線에 熱을 올릴 것이다.

### (3) 南·北對話 關係

70年代에 들어와서 國際情勢의 急變은 韓半島에도 심한 波長을 일으켜 南·北韓兩쪽의 既存政策의 變動을 誘發시켰다. 그것이 具體的으로 나타난 것이 韓國에서는 70年 朴大統領의 「8·15宣言」과 그 以後의 여러차례에 걸친 思想·理念·制度를 超越한다는 이른바 脫「아네울로기」宣言이 있고, 北韓에서는 71年 4月의 所謂「平和統一 8個項方案」提議와 同 8月 韓國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諸政黨, 社會團體 및 個人과도 統一問題 論議를 為해 接觸할 用意가 있음을 提議한 것 등으로, 이러한 것은 既存政策의 變化를 示唆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71年 3月 12日, 韓國은 北韓의 離散家族을 찾아주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對해 北韓은 即刻적으로 受諾함으로써 人道的 對話は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며칠지 않고 거의 1年後 韓國은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으로 하여금 北韓을 訪問토록하여 南·北韓關係 改善의 本格적인 試圖를 하였고, 北韓 역시 朴成哲 第2副首相을 韓國에 보내 對南 平和攻勢의 積極性의 一面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結果 民族史의 大轉換이라 불리우는 歷史的인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동안 韓半島에는 南·北 赤十字社에 依한 人道的 對話와 南·北調節委에 의한 政治的 對話가 서울과 平壤에서 輪番으로 進行, 次元을 달리하는 두개의 對話 「채널」이 거의 同時的으로 機能을發揮해 왔다

먼저 南·北赤十字社에 의한 離散家族 찾기 會談에 關하여 살펴보면, 이 會談은 71年 9月 20日에 開催된 第1次 豫備會談에서부터 72年 8月 11日 最終豫備會談에 이르기까지 都合 25次의 豫備會談을 거친 후 本會談에 들어갔는데, 72年 6月 16日의 第20次 豫備會談에서는, ① 離散家族과 親戚의 住所와 生死確認, ② 離散家族과 親戚의 自由訪問과 相逢, ③ 離散家族과 親戚의 書信去來, ④ 離散家族의 再結合, ⑤ 其他 人道的인 問題등 5個項을 確定하였다. 第1次 本會談은 72年 8月 20日 平壤에서, 第2次 本會談은 9月 13日 서울에서 開

(106) 日本 每日新聞, 1972年 9月 19日.

催되었고 本會談議題 第1項에 對한 實質的 討議는 10月 24日 平壤에서 열린 第3次 會談에서 부터 始作되었다. 이 3次 會談에서 韓赤側은 事業機構로 「南·北赤十字 板門店 事業所」設置를, 北赤側은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必要한 곳에 「赤十字 代表部」를 設置할 것을 提議함과 同時에, 「南韓에서 法律的, 社會的 障碍를 除去, 與件을 造成해야 한다」는 이른 바 「環境造戎」問題등 政治的 色彩를 加味하는 어려운 問題를 提起하였다. 그리고 第4次 本會談은 11月 22일부터 서울에서 開催, ① 赤十字會談에서 合意되는 事項을 實行하기 위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板門店 共同事業所 設置, ② 이들의 機能과 運營節次 및 構成은 따로 討議 冷定, ③ 合意事項 實行을 위한 그밖의 機構가 必要할 경우 앞으로 討議, 冷定한다는 것 등에 관하여 合意하였다.<sup>(107)</sup>

이와 같이 第3次 會談때부터 議題 第1項인 「離散家族과 親戚의 所在 및 生死確認」問題에 對한 討議에 들어 갔으나 第4次會談까지 큰 進展을 끝보고 雙方間에 提案內容을 놓고 討議를 進行하는 段階에 머물러 있다. 특히 北赤側은 南·北赤十字會談을 단순한 赤十字團體 間의 人道主義의 家族찾기 運動에 두지 않고, 南·北間의 두 執權黨이나 諸政黨, 社會團體 그리고 廣範한 人 몽들의 參加가 必要하다는 態度를 제속 取해, 政治色을 짙게 露呈함으로써 會談進行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南·北調節委에 의한 政治的 對話는 그동안 모두 세차례에 걸쳐 開催되었는데, 먼저 이를 可能한 「7·4 南·北共同聲明」에 關해 若干 살펴보면, 「雙方은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의 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個項目에 이르는 問題들에 關해 合意하였다. 즉 ① 自主的, 平和的 思想·理念·制度의 差異를 超越한 民族 大團合에 立脚한 祖國統一原則, ② 相互 中傷誹謗과 武力挑發 中止 및 軍事的衝突防止, ③ 自主的 平和統一 促進을 위한 南·北間 多方面的 諸般交流의 實施, ④ 南·北赤十字會談 積極支援, ⑤ 서울·平壤間 直通電話 設置, ⑥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⑦ 合意事項 誠實 履行에 對한 約束등이다. 이 7·4 聲明에 依據한 第1次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會議는 72年 10月 12日 板門店에서 韓國側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北韓側의 金英祐 組織指導部長을 代身한 朴成哲 第2副首相 사이에 열렸고, 第2次 共同委員長 會議는 11月 3일부터 平壤에서 開催, 「72年 11月 11日 零時를 期해 對南·對北 放送과 軍事分界線上에서의 擴聲器에 依한 對南·對北 放送, 相對方 地域에 對한 「비라」撒布를 그만두기로」한 共同發長文을 採擇하고, 「南·北調節委 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를 署名, 交換하였다.<sup>(108)</sup> 이 合意書에 依하면, 南·北調節委의 機能은, ①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 ②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의 人士들의 廣範한 政治的 交流, ③ 經濟·文化·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의 問題, ④ 軍事的衝突을 防止하고 對峙狀態를 解消하는 問

(107) 東亞日報, 1973年 1月 6日.

(108) 東亞日報, 1973年 1月 4日, 1月 5日.

題, ⑤ 對外活動에서 共同步調를 取하여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稽持를 宣揚하는 問題등을 協議 決定하되 그 實行을 保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調節委의 休會期間에 提起되는 諸般問題를 協議 決定할 「幹事會議」(雙方 幹事 委員과 各各 幹事 2名으로 構成)를 調節委 안에 두고, 調節委 事業이 進涉되는데 따라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分科 委員會를 두기로 함과 同時, 板門店에 「南·北調節委 共同事務局」을 設置하기로 合意하였다. 이같이 平壤會談에서는 雙方間에 南·北調節委의 目的·機能·構成및 運營에 關한 合意事項을 마련함으로써 「이태울 署」와 體制를 超越,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겠다는 7·4 聲明 精神을 具現하기 위한 第一步를 내디디게 되었다. 그리고 第3次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會議는 11月 30日부터 시속에서 開催,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發足시켰다. 이로써 7·4 聲明 以後 4個月 26日만에 南·北間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나라의 統一問題를 다루는 南·北調節委員會가 正式로 發足, 南·北 對話의 母體가 形成되었다. 따라서 이 南·北調節委는 앞으로 南·北間의 諸般交流實現問題를 包含, 廣範圍한 問題들의 論議를 推進해 나갈 것이며, 南·北赤十字會談과 相互 補完的 關係를 가지면서 南·北關係의 새로운 局面에의 突入을 誘導해 나갈 것이다.

## 五. 結 語

北韓은 19' 2年 12月 27日, 새憲法의 發效로 金日成 主席의 體制를 더욱 公고히 確立해 놓은 셈이다.

恒常 獨裁體制下의 共產圈에서의 外交政策은 權力を 쥐고 있는 少數 人士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迅速히 达스릴 수 있는 것이다. 北韓 역시, 金日成 體制下에서는 金日성이 생각하고 있는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執念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戰術勺인 變更에 따르는 方法이 달라 질 수는 있는 것이다. 北韓外交는 激動하는 國際情勢에 보다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活動을 活潑히 展開시킴으로서 國際社會에서의 地位 向上에 大한 힘을 기울일 것으로 展望된다.

그와같은 戰術의 方法의 變化에 따라, 中立諸國을 위시한 對西方側 接近外交를 더욱 積極的으로 展開시킬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日本과 美國에 對하여 보다 活潑한 接近이 試圖될 것이며, 分斷된 韓國의 現實 固定化를 폐하려는데 傾注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國際聯合에서의 國際的 優位를 거루는데 또한 큰 힘을 기울이는 同時に 越南戰後의 國際的인 緊張緩和라는 亂세에 便乘한 平和攻勢는 더욱 活潑히 展開될 것으로 展望된다. 對 中立및 西方側에의 接近은 먼저 非政治的인 分野에의 接近으로 부터 政治的인 分野로 그 接近을 擴大해 나갈 것이다.

北韓은 現 韓半島의 分斷狀態의 固定化의 一環으로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sup>(109)</sup> 代替하는 問題를 끈질기게 들고 나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現在 國際政治面에 보다 敏感히 便乘하는 對外政策。當分間 持續될 것이다. 또한 「두개의 韓國」을 國際社會에 浮刻시키기 위한 努力 을 꾸준히 展開시킬 것이며 그와 같은 問題는 어느 程度 流動하는 國際情勢下에서는 進展을 보일 것은 展望된다. (1973年 2月 25日 執筆)

---

(109) 日本 每日新聞, 1973年 1月 13日.